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00143-10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요원

둔한 나눔천사

# 정기음

## 향기로 피어나다

2018 사회복지요원 체험수기집



병무청



## 발 간 사

Congratulations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칭찬은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사회 곳곳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박수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인생의 디딤돌이자 전환점이 되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현역병으로 국토를 방위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요건 등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전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서비스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장애아동을 응급조치로 살리고,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담담히 이야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담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은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든든한 손자가 되고, 중증 장애아동들의 다정한 형과 오빠로서 묵묵히 도와주는가 하면, 업무를 마친 후에는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관련된 직종에서 꿈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이도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회복지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성실히 복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이 우리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를 통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진솔한 마음이 전국 곳곳에 향기가 되어 피어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병무청장 기찬우

# 심 사 평

Congratulations

공동체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는, 서로를 도와서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은 병역이행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그 소속과 보직의 형태가 달라도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투철한 정신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들의 사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2018년 체험수기 심사의 주안점은, 사회복지무원 복무기간동안 보람찬 근무생활의 경험이 국민들 속에서 잘 화합하였는지에 두었다. 갈수록 응모작품들의 기량이 높아져 변별하기가 힘들어웠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글쓰기의 구상과 표현에 대한 고민이 얕은 작품들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우수작인 「디딤돌이 되어주는 길」은, 청각장애를 겪었음에도 아동 센터에 근무하면서 중고교생들을 바르게 선도한다는 내용인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전체의 흐름을 짜임새 있게 전개하였다.

우수상의 「시간이 주는 의미」는, 첫 근무지에서 알게 된 장애 아이를 계속 보살피기 위하여 수월한 근무지를 마다한 복무자의 울컥은 마음을 담담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무원에서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이혼과 자살 등 겪어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며, 미래도약의 기회로 준비하는 모습이 장하다.

장려상의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등불」은, 컴퓨터전공자가 현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까지 도모하고 호평을 받은 내용인데, 주제를 잘 마무리하였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는, 시청의 농축산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지요원이 현장의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며 자기반성으로 생생한 묘사가 내면을 잘 드러냈다.

「역경, 뒤집어 경력」은, 오랜 해외생활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복무하는 과정을 서술한 바 문장구사력이 돋보인다.

특히, 복무기관담당부문의 「복무지도관이라서 행복합니다」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칫 냉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보살피고 지도하여 반듯하게 복무기간을 마치게 한 사례들과 자긍심을 조리 있게 표현하였다. 심사의 어쩔 수 없는 공식 때문에 우열이 존재하지만, 작품들을 열성적으로 다듬고 보내주신 모든 응모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심사위원 **이 광 복** (소설가·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최 성 배**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

# 목 차

## Contents

### 사회복무요원

#### 최우수상

10 디딤돌이 되어주는 길 최동원 | 춘천지역아동센터

#### 우수상

17 시간이 주는 의미 김영진 | 대소초등학교

24 사회복무요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김동호 | 에덴동산

#### 장려상

30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등불 백승록 | 부산항만소방서

36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양인석 | 강릉시청

41 역경, 뒤집어 경력 신치호 | 부산광역시동래 교육지원청

#### 입 선

47 여름과 여름 사이 이정호 | 새롬학교

54 관찮은 사람 강현우 | 여수경호초등학교

60 동행, 함께 꿈꾸다 강범석 | 남해소망의집

67 손을 잡는다는 것 박민혁 | 디차힐

73 사회의 등불이 되자 서호성 | 울산과학기술원

78 출동해봄직 하지 아니한가 최혜성 | 삼척소방서

82 어제도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김태현 | 한국철도공사 신창역

87 그들의 미소에서 나의 미소로 차대건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93 길게 보면 사랑스럽다 송태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99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생각하며 강선우 | 이동행정복지센터

106 돌이켜보니, 모두 사랑뿐입니다 정홍규 |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112 쓸모없지 않습니다 김성현 | 속초시니어클럽
- 119 사회를 배우다. 나를 이해하다. 김민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 126 꿈을 향해 달리는 기관사 최재원 | 서울교통공사
- 132 in my self,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권근우 |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 139 사회복지무요원들의 사회복지무요원 윤준혁 | 의왕시청
- 147 나를 성장시켜준 너의 웃음 김현준 | 원주청원학교
- 154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것들 김민기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 160 500일간의 여행 소준섭 | 창원천광학교
- 165 선의 의미 이성수 | 서광학교
- 171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병역의 의무 박성민 | 원주가톨릭 노인복지센터
- 176 지하철 안내원이 되고 싶습니다! 조원익 | 대구도시철도공사
- 182 나는 오늘도 소확행을 찾는다. 한준영 | 수원시청
- 188 96번 할머니, 78번 할아버지 서병수 | 성산중합사회복지관

## 복무관리담당



### 장려상

- 196 복무지도관이라서 행복합니다. 최병필 | 부산지방병무청

### 입선

- 201 그들과 함께 최기섭 | 강원영동병무지청
- 205 키작은 아줌마 복무지도관, 수호천사들의 천사로 거듭나다 최경자 | 강원지방병무청
- 211 작은 빛을 함께 디자인 하는 방법 이현진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8 사회복지무요원 체험수기집

# 사회복지무요원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ww.mma.go.kr](http://www.mma.go.kr)



## 디딤돌이 되어주는 길

최 동 원 | 춘천지역아동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요원 최동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30여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함께 웃고, 때로는 울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선생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파란만장했던 10대의 시절

저는 6살 때에 심각한 중이염에 걸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주기적으로 왕복하며 병원생활을 하며 다녔습니다. 큰 수술을 10번 정도를 하며 그 동안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가 않은 상태로 자랐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대화도 잘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 곁에 항상 계셨던 교회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내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수술을 하여 잃었던 청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저를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준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하면서 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보답해야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계속하며 결론을 내린 것은 제가 꿈을 찾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서 도와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상 못했던 길

마지막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한 가지 물어볼게 있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청력이 회복하여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남들처럼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때를 놓치게 된다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 저는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모두가 저를 응원하셨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수술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 결과 눈 시력이 안좋아서 신체등급 현역2급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혹은 4급을 받아 사회복지무원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생활을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조연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군대를 장교로 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과 관련되어 있는 공군으로 가기위해 휴학을 하고, 영어공부를 비롯한 장교시험을 준비하며 4년을 보냈습니다. 체력검사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릎이 너무나 아팠지만, 끝까지 참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혹시 모르니 무릎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권유를 받고 여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대로 군대에 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를 않아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있는 병무청에 가서 재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저보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몰랐는데 검사 결과 제가 한쪽이 틀어진 평발 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는 4급으로 판정을 받으며 사회복지무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4년을 보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거 같아 억울했습니다. 장교가 되는 길을 평발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여 이곳 지역아동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던 곳

사실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기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이유가 아마 친구들이 공부방이라고 말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친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친구, 다문화 가정

에서 자라온 친구, 부모님의 맞벌이로 집에 늦게 오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친구 등 많았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서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케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연구실에 다녔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맡았고, 저랑 같이 배정받아 함께 일하게 된 친구는 초등학생을 맡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사춘기에 들어오면서 예민할 때가 많아서 처음에는 천천히 다가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적응을 하며 출근했는데, 어느 날 저의 10대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을 끝나치고 나서 결심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면 내가 그 날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결심을 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난 이후로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이들이 무섭지가 않았고, 친구처럼 다가가 현재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듣고, 그 친구들이 부족한 과목들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한 문제집을 만들어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니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이들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친구들은 각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지금은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멋있게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다시 보게 된다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싶습니다.

## 디딤돌이 되어, 한 친구를 위한 꿈의 발판이 되어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기 힘들어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방법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이 친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자신감을 잃었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먼저 상실했던 의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며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딱 이것이다 생각하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평균을 30점을 올려서 70점을 넘기게 된다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지만 못할 시에는 방학 때 나와 함께 출근을 해야 한다.”이 제안을 들은 이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을 잘하면 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친구가 평균을 30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저와 같이 출근을 하는 것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센터에 가장 큰 장점은 대학부 청소년 교육봉사자 선생님들이 많았고, 근로 장학생으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공을 살려서 과학을 맡고, 나머지 과목들은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 이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친구는 과목별로 선생님들로부터 숙제를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가자 이 친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이 친구가 어떤지 생각도 듣고,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가족들도 공부 안하고 게임만 한다고 구박하곤 했는데 대우하는 게 달라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본 결과 이 친구는 시험에서 평균 35점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 지도했던 선생님들도 센터 종사자 선생님들도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이 친구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이 친구가 자신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생각치도 못했던 강원도교육청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본 중학교 친구들은 이러한 수업방식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수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일지를 만들었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이 친구가 평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고, 결국 이 친구는 꿈에 그리던 인문계를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끔씩 센터에 방문을 하여 자기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을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친구에게 너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일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하며 좋은 이미지가 되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저는 똑똑하고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격도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처리 면에서도 실수할 때가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좌절하고 다니기 싫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제가 받아온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른 방법으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경험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경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한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엔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이 주는 의미’

김영진 | 대소초등학교

훈련을 수료하고 음성교육지원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내 마음만큼이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지요원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어떤 일에 배정을 받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교육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우울함이 더해지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고 근무지가 다른 곳이 아닌 학교라는 것에 일단 마음이 놓였다. 더구나 초등학교이므로 한참 동생뻘 되는 아이들과 2년을 지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설레는 기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다시 나의 우울은 납덩이처럼 더욱 무거워지고 말았다. 내가 맡게 되는 일이 장애학생을 돕는 일이라고 교육청 주무관님이 말씀하실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만 같았다.

‘장애 학생이라니...’

티브이나 거리에서 무관심하게 보거나 그냥 지나쳤던 장애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나 자신도 잘 관리를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장애를 가졌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등등...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내 머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상상과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몸은 힘들지 않을 거다,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겠지만 보람 있는 일이 될 거야’

주무관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차에서 내린 나는 터덜터덜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 새로운 만남의 시작

교장,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특수학급 선생님들께 이것저것 설명을 듣는 것으로 나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다. 초등학교에는 두 개의 특수학급이 있으며 약 1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라는 학생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 병명도 낯설 뿐만 아니라 나는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몹시 궁금했다. 마침 방학 중이어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개학 때까지 나는 ○○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만 그려볼 수 있었다.

마침내 개학식 날, 아이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나는 다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 학교로 향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처음 ○○을 보았을 때 느낌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왜소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말은 잘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발음...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아이의 수업을 지원하고 식사지도를 하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 수가 없어서 나는 종이와 연필을 늘 갖고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해야만 했다. 또한 물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흘러내리는 침과 콧물을 닦아주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에 급식을 떠먹여 주어야 했다. 입 안 가득 음식물을 넣고 씹던 아이가 재채기라도 하게되면 내 얼굴로 폭탄처럼 음식물이 쏟아지는 일은 다반사였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동행해야만 했고 그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하교하는 시간까지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여 주어야 했다.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만 하는지,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제도를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심정으로 지냈다. 어서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 주기를 밤마다 잠자리에서 기도하듯 응얼거리다가 잠들곤 했다.

## 짧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게 익숙해진 ○○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일쑤,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의무감으로 업무에 임하던 나도 차츰 아이에게 지쳐서 급기야 아이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기까지 했다. 서로에게 짜증을 부리는 날이 많아질수록 하루해가 더 길게만 느껴졌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갔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몇 번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 때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야호!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사 간 곳에서 새롭게 배정된 근무지는 집 근처의 아동센터였다. 일반 학생들이 하교 후에 센터에 오면 숙제를 챙겨주고 그 외의 생활을 돌봐

주는 일이었다. ○○을 돌보는 일에 비하면 많이 달랐다. 그런데 그 곳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매일 퇴근 무렵 ○○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이었다. 아이는 그 어렵게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선생님,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웃기시네, 보고 싶긴, 난 네가 전혀 안보고 싶다!’

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의 저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무언가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절대로 쳐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죄책감...

형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종일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내가 왜 이러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은 걸까?’

나를 대신해서 근무할 사회복지무요원을 아직 배정받지 못했을 특수학급 아이들이 겪을 어려움과 특수반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내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다시 초등학교로 가야하나?’

아마 나는 그 때까지의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 같다.

## 다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와 ○○과의 전투적인 날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 때문에 가족들도 한 달 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선생님들의 배려로 다른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아이와도 하루에 잠깐씩은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재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내가 선택한 결정에 스스로 기특한 생각마저 들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결코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고달프고 피곤한 일의 연속이었고 퇴근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 예전처럼 지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카뮈의 말이 생각났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건 적응하게 되어있다’

‘어차피 삶이란 버터내는 것이다’

그렇다. 2년간의 복무가 아무리 힘들지언정 앞으로 내 인생 어딘가에 놓여있을, 아직 내가 모르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만큼이야 하겠는가, 이 정도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용히 나는 조금씩 내 속에서 커지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드높게 하늘이 푸른 가을 운동회가 열리던 날, 나는 제주 경기에서 ○○을 휠체어에 태우고 운동장 필드를 신나게 달렸다. 웬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져 화장실에서 하염없이 울던 아이의 아픔을 알게 되던 날은 온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었다. 6학년이 된 아이가 놀이동산으로 현장학습을 갔던 날은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던 바이킹을 같이 타기도 했다. 작년부터 곤봉던지기와 포환던지기를 시작한 ○○은 충북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메달을 2개나 따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충북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장애 등급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는 아이가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다시 따서 3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마치 내가 메달을 딴 것처럼 좋아서 펄쩍 펄쩍 뛰기도 했다. ○○외에도 역도 종목으로 출전한 특수반 아이들 □□와 ◇◇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안고 돌아와 기쁨이 배가 되었다. 더구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모두 등위에 들어 특수반 아이들 전원이 수상을 하게 되는 경사가 겹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전체 교직원 선생님들의 축하와 격려를 한아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월요일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을 부축하고 상을 받기 위해 조회대에 올랐을 때 뒤쪽에서 들리는 ‘와~’ 하는 함성소리에 가슴 한 쪽이 울컥 하기도 했다. 학교 개교 이래 특수반 전원이 상을 받는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상을 왜 받는지도 모르면서도 싱글벙글 웃는 아이, 상을 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에 저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날처럼 아이들이 고맙고 위대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특수반 선생님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화려하게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했고 미약하나마 나의 적은 힘이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쓰임이 있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했다. 그 날 환하게 웃는 특수반 선생님들을 보면서 군복무를 하는 나는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임무를 다할 뿐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하루 종일 고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반 선생님들이 보통의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존경스럽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과 특수반 아이들과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나의 복무기간도 채워져 가고 있었다.

사람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믿어 주고 인정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내게 ○○이, ○○에게는 내가 그런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현실에서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내가, 거짓 없이 적나라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인 담금질을 통한 성숙의 길로 반걸음쯤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줄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에 한 명쯤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아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 내게 생겨났던 모든 일들과 또 앞으로 생겨날 그 어떤 일들도 모두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했던 이 시간들이 영양분이 풍부한 자양토의 역할을 톡톡히 해줌으로써 아직은 미완성인 나의 삶이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것으로 완성되어 가리라고, 그것이 시간이 주는 의미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 사회복무요원에서 사회복지사로

✿ 사회복무를 통해 꿈과 직업을 그리다 ✿

김 동 호 | 에덴동산

### 꿈과 희망이 말라버렸던 나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별 탈 없이 훈련소를 입소해서 훈련소를 잘 마치고 사회복무에 관한 이야기를 싱글병글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사회복무를 하기 전까지 별 탈이 많아서 사회복무를 하기 전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짐을 헐레벌떡 챙기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여행을 다녀오시나 보다 해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거나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죠. 그 공백을 큰형과 작은형이 밥과 청소 학교가는 거까지 챙겨 주었지만 두 형이 없을 때는 제가 혼자 알아서 밥을 먹고 청소도 했죠. 중학교 때는 건장한 아저씨들이 집에 소위 빨간 딱지(압류딱지)를 붙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죠. 그 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두 달이 안되어 가던 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딱 고등학교 첫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여서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이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꿈을 꾸는게 아닌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척분들께서 귀뜸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저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까지 팔릴 위기에 있었는데 간신히 고모께서 빚을 갚고 막아주셔서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 했고 고등학교 절반을 무단 지각 무단 결석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진지하게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권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형과 작은형은 학교는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하여 꾸역꾸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과 고향이 싫어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가 고시원을 전전하며 막노동과 알바를 하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에 사회복지무원 소집 통지서를 보냈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는 집에 받는 이는 없었고 소집하는 날 소집되지 않은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가본 경찰서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고 경찰관의 험악한 인상도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이러면 안되었는데...

사회복무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님께서도 재판에 보내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첫 사회복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면서 훈련소 생활을 별탈없이 보냈고 저의 근무지인 여수에덴동산으로 첫 출근하는 날 저의 꿈과 직업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 꿈이 있었던 거주인들

“세상에 나만 큰 힘든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사회복지사를 하기 전 저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를 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는 몇몇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부모님도 없고 친척이나 아는 분들도 없으셔서 명절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몸과 정신 또한 불편하셔서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저처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습니다. 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씨와 ○○씨가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활기차게 “김동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십니다.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씨는 밥을 배식할 때나 목욕을 시켜드릴 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저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 하나가 그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대부분을 거주시설 안에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나 나들이 드라이브입니다. 밖에 나가자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옷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 또 소풍을 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항상 감사하는 마음 뿐 만 아니라 저에겐 없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각자 작지만 소박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씨는 한자를 마스터 하기 위해 태블릿 PC로 점심밥을 먹고 한자공부 앱을 다운 받아서 공부를 하셨고 ○○씨는 성경책을 독파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성경

책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연애와 결혼 집사는 것도 계획중인 분도 계셨습니다. 흔히 요즘 저희 세대를 보고 5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집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장애인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네요. 이러한 자기 반성을 매번 집에 가는 버스안에서 하고 자다가도 하고 근무하면서도 문득 문득 구름처럼 스쳐지나 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꿈을 갖게 된 나

그리고 어느 날 근무하는 곳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이 있다고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를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장애인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일주일 정도 하다가 원장님에게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저의 고민을 말씀 드렸는데 사회복지요원 2년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발판이라는 원장님의 조언으로 아침 9시~오후 6시까지의 열심히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일하고 퇴근 후 인터넷으로 사회복지사 2급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깐 사회복지요원 현장에서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라는 구절을 보고 사회복지요원도 어떻게 보면 “리를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을 정말 잘하는 것이 제가 미래에 사회복지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죠.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후 저의 사회복지무원 복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인 분들 하나하나 행동을 보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격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어떠한지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는 늘 실내를 배회하며 알록달록한 물건이 있으면 입에 가져가서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알록달록하고 과자의 형태를 지닌 물건은 일체 놔두지 않아야 하고 밥을 드실 때는 항상 씹지 않고 삼키셔서 음식을 잘게 잘라 드려야 합니다. ○○씨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왁자지껄한 소리를 내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옆사람을 때리며 흥분을 하시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잘 타이르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 드리면 금방 진정을 하고 웃곤 하십니다. ○○씨는 밖을 항상 돌아다니면서 창고에 물건을 뒤킨거나 하시기 때문에 창고는 항상 불일을 보면 잠귀야 하고 밖에 위험한 망치라던가 곡괭이 같은 것은 쓰고 바로 창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는 비만이라서 많이 먹으면 안되는 분인데 꼭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많이 안준다고 하면 얼굴표정이 어두워지고 곧바로 숟가락을 던지거나 화를 내시는데 육류는 최대한 줄이고 채소비율을 늘리며 ○○씨에게 많이 줬다고 해야 ○○씨는 웃으며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거주인 분들이 흥분을 하거나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이 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고맙다고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뿌듯함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 나에게 있어서 사회복무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나름 굴곡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저의 꿈을 생각하게 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해준 것은 사회복무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같은 곳에서도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대충 시간만 떼우고 2년을 보낸다면 그것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서 허송세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라도 배워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회복무에 임한다면 저처럼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남은 1년 동안 사회복무를 열심히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친구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다가가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복무가 끝날 때 즈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한 따서 정말 후회없는 2년의 시간이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기를 다짐해봅니다.



##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등불

백 승 록 | 부산항만소방서

융합형 인재. 요즘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육성하려한다고 합니다. 인문대학, 공학대학 등의 분야의 틀을 깨고 여러 전공을 융합해서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학창 시절 들었던 캘리그래피 강의를 듣고 최초로 폰트를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했고 안랩의 안철수는 의사였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융합형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복무하는 분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과 같은 관공서, 복지관, 지하철 등. 공통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찌면 해당 업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문제조차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무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여

조직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무원이며 그 변화가, 그 노력이 자신과 머물러 있는 지역 사회에도 ‘희망의 등불’ 처럼 긍정적 변화로 다가올 수 있음을 근무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항만소방서 공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과 이후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 “컴퓨터 전공했다고?”

“대학교에 컴퓨터 전공했다고? 이야~ 예방계 딱이네!” 첫 출근을 했던 날, 사회복지담당자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하신 말씀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를 탈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의 예상과 달리 예방안전과는 소방시설 점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방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 계층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가정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공인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면서 출판물의 수정이나 엑셀을 이용한 자료정리 등의 업무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일을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신입인 제가 어느 정도의 일까지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중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찬스 : 앱을 만들다

2017년 12월, 우연히 제 전공을 살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항만소방서 공병관리시스템>의 시스템과 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같은 과의 장비담당 직원께서 저한테 물어봐줍니다. “같은 문서 파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첫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지만 질문은 꼬리를 물고 물어서 ‘산소호흡기 관리카드를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질문의 궁극적 목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장님, 그럼 차라리 컴퓨터에 앉아서 엑셀문서를 작업해서 주고받는 것보다는 핸드폰 앱으로 만들어서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시스템과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프로그래밍보다는 행정용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용어, 문서를 결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그 업무와 용어들이 경험이 없는 제게는 생소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하니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행정에 문외한인 제 눈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물어가면서 없애가면서 시스템을 제작해나갔습니다. 물론, 삭제한 부분 중 일부는 다시 복원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단축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게는 수많은 오류나 문제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사진 : 앱 시작 화면>

## 다름 : 실패에서 배운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주말도 없이 앱 제작에 매진한 끝에 석 달 만에 시제품이 나왔고 설치파일을 항만소방서 산하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작품은 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내선전화와 핸드폰에 붙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동료 소방관은 되는데 내 핸드폰은 안 된다”라던가, “분명히 적용했는데 컴퓨터로 보니 적용이 안 되어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니다. 처음엔 당혹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선의로 만든 앱이었는데 안된다고 짜증을 내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깐, 해결을 하고 보자.’라는 마음에서 앱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 전공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일부의 기능을 더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가져야할 소양이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디자이너의 자세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획자의 자세도 필요함을 배우면서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앱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당연하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과 저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납득하지 못하고 적용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화면을 띄워주는 시제품의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보여주고 수정할 수 있는 앱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앱의 구조와 디자인을 완전히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기 전의, 시제품 앱을 다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앱이지만 제가 봐도 어렵더군요. 그 때 알았습니다. 저는 앱을 만든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웠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봐도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정식버전의 앱은 다행히 현재까지도 소방서에서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되기를!

그렇게 글이 아닌 경험으로 배운 ‘다름’이라는 것은 저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찌면, 제 주변의 지역사회도 일부분은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배우고, 잘하는 부분은 가르쳐줘야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월부터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영도의 해동중학교에서 토요일에 ‘대학생멘토단 선배가 간다!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맡아서 강사로 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요청할 때 진학설명회에서 ‘정시로 대학가기/정시 학습법’의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계 강연을 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하고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초보 개발자를 위한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데 사용된 해외의 여러 기술을 사용하면서 영어라던가, 부족한 설명 등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이를 공부하면서 누군가 이 기술을 사용할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더 좋은 기술과 더 발전된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자!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제가 다녀왔던 보은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시작과 끝을 장식하던 사회복지무원 현장의 첫 번째 문장이자 유일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문구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항만소방서에 첫 발을 내딛던 2016년 10월의 그 날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랑과 나눔은 꼭 남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앱을 개발해서 부산소방이라는 조직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으로 작게나마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무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말의 재능기부나 기술 관련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일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사랑과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고, 크게는 사회복지에 기여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회복지무원이 가진 강점이자 희망의 등불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양인석 | 강릉시청

###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강릉시청 축산과에 소속되어 일반 행정 보조업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축사 및 가축들과는 전혀 접점이 없었던 나에게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은 그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에 불과했고, 비위가 좋지 않았던 나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했던 나는 점점 지쳐갔고, 집에서의 투정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이 글을 적으며, 그동안의 내 생애는 부끄러웠다고 회고할 수 있는 까닭은 약 14개월간의 경험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축산과로 한걸음

남들과 다른없는 학창시절을 지낸 후, 2016년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고등학교 생활과 다른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시기가 되어 검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복무 신청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복무를 선정하는 전형에는 성공하지 못해서, 선 복무라는 전형 신청에 응모해 간신히 붙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일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히 원하는 업무도 있지 않았고, 어느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3월 13일 강릉시청 축산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릉시청이란 사실을 메일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축산과로 배정받는 것은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축산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축과 관련된 부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소 돼지 닭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축산이라는 형식적인 말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등,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시던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축산과로 향했습니다.

##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다른 사회복지요원들과는 달리 훈련소를 먼저 거치지 않고, 쭈뼛쭈뼛 들어온 저에게 축산과 직원 분 들은 여러 가지를 친절히 알려주시며 복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한동안 붕 떠있었습니다. 그저 직원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시작한지 1~2개월 정도가 지나고, 사무실에서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나는 본격적인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공무원이 선망 직업 1위로 뽑히는 삶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만 두들기는 직업이겠지?’ 예,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내가 시청 축산과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처음 출장 나갔던 장소는 ‘강릉가축 경매시장’이었습니다. 아스팔트길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도착한곳에는 처음 보는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메스꺼움과 꺼림칙스러움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들의 비릿한 냄새, 수십 마리의 눈동자, 수많은 사람들, 경매를 알리는 기계음 소리, 모든 것이 처음 느껴지는 것 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들 또한 정육 되어있는 고기모만 봤지, 살아있는 소를 그것도 수십 마리를 눈앞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었던 나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나는 그저 따라다니며 그것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덧 경매시장이 막바지에 이르고, 시청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같이 나갔던 계장님은 나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저 멍해져 있던 나를 슬쩍 보시던 계장님은 웃으시며

그저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유통되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야한다고,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경매장에 묶여있던 소들의 눈에 공포감을 얻어 멍해있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시는 그것들에게 수치심을 주지말자. 그것들의 목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자. 그것들을 제대로 마주하자. 다시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 동계올림픽을 대비하며

선 복무라는 전형 특성상, 복무를 하다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했고, 나는 복무를 시작한지 약 7개월 만인 10월쯤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나마 선선했던 시기였고, 주변에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그곳에서의 1달은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니 가족같이 대해

주던 시청 축산과 생각이 많이 나서, 수료가 끝나면, 빨리 돌아가 내가 있던 자리에 다시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가축 경매시장 건이 있고난 뒤로 훈련소에 가기 전까지 나는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고, 거리낌 없이 마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료를 마치고 11월에 출근을 한 나의 복무지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보이는 조류독감 관련 업무와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방역업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박한 업무였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특수성 있던 업무였습니다. 일단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축산과 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방역 업무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문의 뿌듯함을 가진 채 시작한 주요업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소독 발판을 설치해 이를 예방하는 것 이었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강릉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과 새로 생긴 ktx 기차역 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부터 시작해 외국인들 까지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소독 발판을 설치하고, 이를 매일 2회씩 적시고 교체하는 작업을 올림픽이 끝날 때 까지 반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다니며 슬쩍슬쩍 눈길을 주는 것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지만, 올림픽을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니 어느덧 부끄러움도 짝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올림픽 성화 봉송 관련 지원 업무도 나가고, 올림픽 관련 가축 수매 업무도 나가며 수많은 답들과 마주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 배움은 분명히 있다

국방의 의무를 지닌 누구나 복무해야하는 21개월 혹은 24개월은 정말 긴 시간 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기대와 설렘 없이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업무가 마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있는 장소에 대한 의미를 찾으며 일한 14개월은 분명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저 먹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가족들을 직접 마주하고, 관련 업무를 하며 더 이상 그것들을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TV를 보면 조류 독감, 구제역 등등 가족관련 질병이 나오는 것을 흔치않게 봤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며 아마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 할 것 입니다. 물론 먼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며 연구하고, 발로 뛰며 충분히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눈만 마주쳐도 공포감에 휩싸였던 저 또한 어느새 그 업무에 함께 뛰어들어 공무원 분들과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남은 약 10개월을 복무 기간 동안 저는 바뀐 신념과 함께 최선을 다해 펼 예정입니다.

분명 남은 10개월 동안 제 힘에 부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시청 직원 분들과 함께한다면 그러한 일들도 수월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다른 사회복무요원들 또는 그 예정자들이 읽는다면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역경, 뒤집어 경력

신 치 호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기본과정 분임장, 53사단 최우수훈련병, 사회복지무원 대표자, 리더과정 학생장... 이 모든걸 관통하는 한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나, 사회복지무원이다. 소집해제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 나에게 이 많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의 정체성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를 되돌아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까지. 나에게 있어 사회복지무원 생활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잠재력을 증폭시켜준 '촉매제'나 다름없다.

### 만 서른

다가오는 내년 1월, 소집해제하게 될 때의 내 나이이다. 현재 난 내가 복무하고 있는 기관의 최고참이자 최고령 사회복지무원이다. 군사교육소집을 위해 훈련소를 갔을 때도 그랬고, 소양교육을 들으러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우사인 볼트의 100m 달리기 기록만큼이나 쉽게 깨질 수 없는 숫자이긴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보다 어린친구들은 의아해한다. 저렇게 나이 많은 아재(?)가 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지?

정확히 15년. 내가 겨우 만 12살이 되었을 무렵,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뉴질랜드에서 중, 고등학교를 거쳐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기나긴 유학 생활을 했던 나는 나홀로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훗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를 열심히 지내고 있었다. 물론 나에게 불시 도착한 연락 한 통이 오기 전까지는...

## 호주약사와 영주권을 뒤로한 채...

호주 퀸즐랜드 주에 소재한 약학대학원을 다니며 약국에서 학생약사로 일도 함께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에게 더 이상 군입대를 위해 더 이상의 해외체류가 힘들다는 연락이 왔다.

“두두두둥~” 누가 틀지도 않았는데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하는 군복무지만, 그 당시에는 약 2년간 생기게 될 긴 공백이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크나큰 딜레마로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때 나는 일하고 있던 호주약국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인턴약사 자리와 보스약사가 서포팅 해주는 영주권까지 오피를 받은 상태였다. 물론 적지 않은 나이와 비영어권에서의 생활이 남길 긴 공백이 내 이력에 끼칠 영향도 무시하지 못했다.

솔직히 여러 가지 편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군입대를 안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유혹도 있었다. 이때 부끄럽게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끝에 내렸던 결론은 ‘누가 봐도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나의 뿌리인 가족들과 ‘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현역에서 4급으로

아무래도 전공을 살리게 된다면 더욱 뜻깊은 군생활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나는 육군 약제병으로 지원한 후, 입영일을 받고 그 전까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서 운전하다 생긴 접촉사고 후 계속 악화되던 허리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나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진단명 ‘○○○○○’. 그렇게 한 순간에 바뀌어버린 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 그렇게 등급이 매겨진 나는 어미 잃은 송아지 마냥 어찌할 줄을 몰라했다. 내 계획에는 전혀 없던 시나리오였기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내 전공과는 무관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고, 흔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일을 하게 될 거란 사실에 나는 매우 낙담해있었다. 그러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부딪혀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처음 근무지 배정을 받았을 때 나의 솔직한 심정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으려나?’ 싶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속한 행정지원과는 교육지원청의 중추로서 여러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며 업무량도 월등히 높은 편에 속했다.

근무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내가 한동안 맡았던 일은 청사 주차관리, 행사보조 그리고 그 외 잡다한 사무보조 정도였다. 그러다 이러한 간단한 업무들이 손에 익고, 내가 속한 팀, 과,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감이 대충 오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업무들을 기본적으로 어려움 없이 처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자

자신감이 붙었고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섰고, 가끔씩 주임님들이 도움요청을 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다. 그 결과, 나는 주임님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의 존재감은 하루하루 커져가기 시작했다. 더불어 나도 매일 아침 눈 떠서 출근하는 길이 즐거워졌다.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에서 어느 한 조직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사회생활을 경험 해보는 게 이번 사회복무요원으로서가 나에겐 처음이다. 겉으로는 영락없는 한국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동안 해외에서 자라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외국문화나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하기가 꽤나 힘들었다.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보다 본인 의사표현이 적극적이었던 외국과는 달리 한 팀으로서의 공동체 문화, 단체생활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때때로는 대다수를 위한 희생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며 내 자신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반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민원전화나 민원인분들도 상대하기 버거웠지만, 지금은 주임님들께서 ‘완전 능글맞다’ 하시며 ‘한국인 다 되었다(?)’는 농담까지 내게 하시는걸 보면 이제 한국사회에도 꽤나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 직원보다 나이 많은 나,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까지

교육지원청에는 나와 나이가 같거나 어리신 주임님들이 몇몇 계신다. 요즘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칭부터 괜히 뭔가 어색하기도 했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분이 다른 내 자신을 보며 나중에는 혼자 이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존감까지 낮아진 듯했다.

나이가 많다는 것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처음에는 내 스스로에게 독이었다. 하지만 나는 떳떳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고, 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여태 내가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장점으로 심분 발휘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외국에서 몸소 체험했던 선진교육사례를 교육공무원분들과 교사분들께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해외 교육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셨다. 실제로도 몇몇 사항은 실무적으로 채택하신 것도 있었다.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고국에 뭔가 기여한 것 같아 괜한 뿌듯함이 밀려왔다. 또한, 외국인 강사들이 올 때면 통번역을 도맡아 도와드리고 업무상 영어가 필요로 하신 직원분들도 도와드리곤 한다. 지금도 내 직통전화기는 바빠 울린다. 허나 나에겐 기분 좋은 벨소리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에선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니까.

### 최우수훈련병, 대표자, 그리고 학생장

감사하게도 나의 소중한 경험은 교육지원청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군사교육소집을 위해 다녀온 53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나는 어린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그 결과 최우수훈련병이란 뿌듯한 결과까지 덤으로 얻었다.

이어서 운 좋게도 소양교육을 위해 다녀온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분임장, 사회복지무요원 대표자로 임명되어 리더교육을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는

학생장으로 뽑히며 나는 색다른 경험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 형, 동생하며 의지하는 소중한 인연들도 생겼다.

## 역경, 뒤집어 경력

‘역경: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 국립국어원에 정의된 역경의 사전적 의미다. 내가 군입대 통보를 받은 후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고 평범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말이다. 같은 돌이라고 해도 그 돌을 걸림 돌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음 여정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난 내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일하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한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 해주었고,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도 되었다.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작년에는 의료통역사 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하는 등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끈을 계속 놓지 않게끔 내게 기회를 주었다. 마치 나에게 마침표가 될 줄 알았던 사회복지무원 생활은 쉼표가 되어 돌아왔고, 이제 나는 그걸 느낌표로 만들어 보려한다.

위에서 말한 ‘역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경력’이 된다. 나에게 있어 24개월간의 사회복지무원 생활은 비록 내 이력서에서는 한 줄로 끝이 날 테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느 순간 못지않게 빛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어 남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준 사회복지무원 ‘경력’과 함께 이제 30대로서 새롭게 맞이할 나의 흥미진진한 ‘인생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내 심장은 또 두근두근 조용히 요동치고 있다.



## 여름과 여름 사이

이 정 호 | 새롬학교

### 무더운 여름, 그들을 만나다.

유난히도 더운 한여름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새롬학교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13년 동안 배구 밖에 몰랐던 나는,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근무지를 고민하던 중 ‘새롬학교’라는 특수학교가 눈에 띄었다.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알고 있었기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2년 동안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특수학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막상 훈련소 가는 일자가 다가오니 걱정부터 앞서게 되었다. ‘취소를 할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주위에서도 ‘장애학교는 힘들어’, ‘어떻게 그런 아이들과 2년을 같이 있으려고?’라는 걱정과 우려의 말이 전부였다. 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학교로 출근하던 날 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내 생각보다 증상이 심한 아이들이 많았다. 눈으로 직접 마주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모습과

처음 듣는 장애 증상들은 그들을 더욱 어려운 존재로 느끼게 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던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하고 막힌 듯했다. 몹시도 무더운 하루였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들도 그랬다.

몇 주가 지나니 비슷하게만 보이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L은 노래만 틀어주면 마냥 웃었다. ‘산할아버지’를 틀어줘도, ‘울면 안돼’를 틀어줘도 무엇이 그렇게도 즐거운지 이를 다 드러내며 깔깔댔다. L이 큰 눈을 초승달처럼 동글게 말아 올리며 눈웃음을 지을 때면 나도 따라 웃게 되었다. 가끔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줄 때면 방청객이라도 된 것처럼 환호를 했다.

K은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양증맞게 사과 머리를 한 K는 된장찌개가 나오는 날은 표정부터 달라졌다. 다른 때는 한참 동안 씹던 밥도 된장찌개가 나오면 먹이를 달라는 아기 참새처럼 한껏 입을 벌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 일부러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며 늦게 주는 척 장난을 치기도 했다.

팔랑이를 양손에 쥐고 ‘아이야, 아이야’라고 말하며 걸어 다니는 아이, 나를 보며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하며 내 말을 곧잘 따라하는 아이, 동그란 눈을 볼 때마다 미니언즈가 생각나는 아이, ‘형, 띄워줘’라며 트램펄린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

자세히 보니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다. 누구나 생김새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 그들도 그랬다.

## 저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등굣길 맞이하기, 치료실 보내기, 수업이나 체험학습 보조하기, 간식 또는 섭식 지도하기, 청소하기 등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섭식 지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물을 뜨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S가 혼자 손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다. 손가락질이 서툰 만큼 흘린 음식도 많았지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힘겹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 S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힘들면 선생님이 먹여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S는 “제가 먹을게요. 저도 할 수 있어요.”라고 당당히 말하였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이 일이 있던 후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H는 손에 포크만 쥐어주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아이였다. J는 우유팩에 빨대만 꽂아 주면 자그마한 두 손으로 우유팩을 꼬옥 쥐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자기 힘으로 하길 원하고 있었다.

지금은 신발 한 짝을 신는 일도 시간이 2배, 3배 더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흔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당연하게 모든 것을 내가 해주고 있었다. 겉옷을 입는 일, 밥을 먹는 일, 간식을 챙기는 일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말이다. 나 혼자 아이들의 한계를 정하고 불필요한 도움을 주며(물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왔던 것이다.

도움을 주겠다며 이곳에 왔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도움은 내가 아이들에게 받고 있는 듯 했다.

## 우리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2~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며 담당하는 반을 바꾸게 되는데, 2년 동안 모든 반을 맡아본 나의 휴대폰 앨범에는 아이들 사진으로 가득하다.

복무를 시작하기 전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1년간 일했었다. 가끔 전에 일하던 초등학교의 선생님을 만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귀엽게 생겼죠?’라고 말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제가 반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언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아래로 내려다보았고, 아이들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와 아이들 시선의 차가 조금씩 좁혀져 갔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였고, 즐거운 일이 하나씩 늘어갔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학교에 오면 웃을 일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 역시 학교에 오면 웃음이 많아진다. 신기한 물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뻗는 모습이, 어린이 날에 고깔모자를 머리에 쓰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무릎에 누워 곤히 잠을 자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된다.

## 우리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학교 2층은 수영장 시설이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치료를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수영장 입구를 지나 치료실로 향할 때면 낯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한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 향하였고, 눈으로 ‘쫓쫓, 딱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며 ‘나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저들과 같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행복한 아이들이다. 노래 한 소절에도 교실이 떠들썩해질 정도로 흥이 넘치고, 우유 한 팩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다. 몸이 건강한 아이들이 당연하다고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다.

체육 수업에서 전담을 하는 M이라는 아이는 다른 수업보다도 체육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체육 시간이 되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체육관으로 가는 내내 소리를 내며 신나 한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열심히 뛰고 달리며 어느 수업 때보다 환하게 웃는다.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일에서 불행함을 느끼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서 행복함을 찾는다.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걷거나 뛸 수 있다는 것.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는 일은 나보다 선수가 아닐까 싶다. 아이들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아이들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

1년에 두 번, 연극을 보러 나가는 체험학습 날이었다. S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다. 서둘러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겨우 찾은 화장실은 너무 좁았다. 특히나 S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좁게 느껴졌다.

그 이후로 체험학습을 나갈 때마다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물론 전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 장애인 시설은 한없이 부족하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데, 신변처리를 할 때 어려움을 자주 겪곤 한다. 화장실이 좁은 것은 물론이고 그 수도 많지 않아 심지어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의자나 땅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있다.

장애인 전용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만 운영하는 택시 수는 많지 않다. 그래서 택시 이용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활동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일, 택시를 타고 원하는 곳에 가는 일. 보통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주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진 장애인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 아이들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다시 무더운 여름

어느덧 복무가 25일도 채 남지 않았다. 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하루하루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졸업식이 기억에 남는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0여 년 동안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떠나가는 날이었다. 일반 학교와 다르게 이곳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바로 낭독의 시간. 아이들은 더듬더듬 느리지만 진심을 다해 한 글자씩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두가 숨죽이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동안 나에게 주어진 소임은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듯이 나 역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인생의 도미노를 다시 설계해 나아갈 힘이 생겼다. 천사 같은 아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했다.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혹여 다칠까, 불편한 곳은 없을까 애지중지 아이들을 대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실무사 선생님들을 보며 사랑과 헌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느낀 사명감과 보람은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을 주었다.

출근을 하니 오늘도 해맑은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씨익 웃음이 지어진다. 몹시나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관찮은 사람

강 현 우 | 여수경호초등학교

### 낮선 땅, 익숙한 곳에서의 마침표를 찍는 날

낮선 땅에서의 첫걸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시작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겐 여수시 경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첫걸음이 그랬다. 처음 여수 부둣가에서 바라본 경도는 거리감 있는 섬이 아니었다. 배를 타고 몇 분만 가면 되는 거리였고, 부둣가에서도 바다 건너에 있는 섬의 윤곽이 다 보였다. 부두 가장 가까운 곳의 건물이 하얀색이고 나무의 초록을 가득 머금고 있는 섬. ‘경도’라는 섬은 여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로 학생이 50명도 안 되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다는 것은 복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보조하는 일은 내게 낯선 일이었다. 새로 접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할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솔직히 특수학생을 보조해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먹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처음 만난 ○○이가 내겐 낯설었다. 간밤에 생각해 놓았던 말들은 잊어버리고 “안녕.”이라면서 ○○이에게 말을 건넸다. 어떤 특별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이 긴장했다. 가만히 나를 바라보던 ○○이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면서 배시시 웃었다. 그 아이의 웃음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 웃음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아이와의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갈 것 같았다.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내 도움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조금 말을 더듬는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편하게 흘러갈 그 아이와의 시간을 생각했고 그 생각들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흔히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 할 때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마주한 ○○이는 조금 낯설었다.

교실을 가득 채우던 책상 치는 소리를 기억한다. 주위의 몇몇 아이들이 잠깐 ○○이를 바라볼 뿐 딱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인 듯 했다. 그때 본 ○○이는 처음 마주했던 얼굴과는 조금 달랐다. 침착해, 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치는 손을 잡았을 때 그 애는 내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그때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감싸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 애의 움직임이 멎고서야 손을 놓았다. 작은 손바닥에서 느껴졌던 뜨거움이 손바닥에 흥건한 땀으로 남아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고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어영부영한 채로 첫 달이 지나갔다. 수업에 들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했지만, 아이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성질이 나면 소리를 지르며 수업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이와의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교육청에서 특수학생 보조 목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을 보조했다. 일주일 동안 특수학생들의 보조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부담스러웠던 2년이라는 시간은 내게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그때부터 였던 것 같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해주던 행동들이 틀린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바다 건너 경도의 초록이 짙어지면서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나는 조그마한 것부터 정리해 가기로 했다. 처음으로 ○○이와 함께 한 것은 신발 정리였다. ○○이가 활동을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원래는 내가 정리를 해주고 따라 들어갔다. 작은 부분에서 그 아이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내 행동은 결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체육활동을 하고 들어가는 ○○이를 불러 세웠을 때 많은 생각을 했다.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들어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 아이가 다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먼저 아이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가 벗어놓았던 그대로 신발을 두곤 ○○아! “해볼래?”하고 말했다. 가만히 내 행동을 보고 있던 아이는 자신의 신발코를 모아 가지런히 두었다.

○○이의 신발코는 가지런한 모습이었다. 아이는 스스로 신발을 정리했다. 솔직히 욕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는 그 아이와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었다. 가끔씩 문을 열고 교실 밖 복도에서 뛰어 놀곤 했는데 나는 아이의 눈을 마주

보며 “○○아, 수업 시간에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돼.”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 후로 언젠가 ○○이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한 적이 있다. 나는 가만히 눈으로 아이의 움직임을 좇았는데, 아이는 문을 열더니 잠깐 멈칫하고 다시 자리로 가서 앉았다. 다시 눈이 마주친 ○○이에게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는데, 아이도 웃으면서 가만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때 보았던 얼굴이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다. 휘어지는 눈매와 가만히 올라가는 입 꼬리, 언젠가 보았던 긴장을 푸는 웃음.

○○이가 주는 영향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지내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같은 반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많이 긴장을 했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조차 어찌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가 그아이에게 “화이팅!”하고 외쳤다. 움츠려 있던 아이의 몸이 펴지고 아이는 조금씩 말을 짚어가며 발표를 마쳤다.

아무도 줄 수 없었던 용기를 ○○이가 그 아이에게 주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중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찌면 오늘의 발표는 그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의 용기에 그 아이는 자신의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아무도 내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용기를 ○○이가 말로써 건네주었다.

그 후에 ○○이와의 마찰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나에게 대한 그 아이의 행동은 2학기가 지나고 다시 새 학기가 돌아왔을 때, 조금 달라져있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작된 일이라 당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지 생각이 많아졌다.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이 아닌, 함께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내가 소중히 생각해도 아이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게 관계의 당연하지 않음에 대해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안돼.”라고 말을 했다. ○○이는 더 이상 함부로 손을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는 ○○이를 보았다.

○○이와 생활을 하면서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틈틈이 ○○이에게 가르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가끔씩 메모가 된 것을 읽어 볼 때가 있는데, 아이와 지낸 날들을 적은 메모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는 ‘인사’였다. 인사를 잘 하는 어린이가 예의바른 어린이지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언젠가 부터 다른 선생님들이 내게 아이에 관해 칭찬을 할 때,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이에게 고마움이 생기고 너무 기뻐다. 물론 그 행동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처음의 ○○이가 생각나기도 했다. 써놓은 메모장을 읽을 때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체감했다. ○○이와의 남은 10개월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와 내 나이차는 열세 살 차인데 지내는 동안 다룬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사소한 기억들로 가득하겠지만 언제였던가 형과 동생 같다고 지나가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가끔 ○○이 생각이 나 조금씩 간식을 사갈 때가 있었다. 그걸 받은 ○○이는 가방을 볼 때면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온 줄 알고 문 뒤에서 얼굴을 내민다.

“○○이, 너 어제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줄 거야.”라고 말하면 아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 문 뒤로 쪼르르 사라진다.

부담스러웠던 2년의 시간이 있었다. 낯선 땅에서의 복잡했던 감정도 있었고, 걱정했던 만남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10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익숙한 땅에서 떠나는 발걸음이 남아 있었고 ○○이와의 이별이 남아있었다. 이런 것에서 아쉬워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와의 이별은 내겐 낯선 땅만큼이나 낯설다. 언젠가 다시 보면 아이가 나를 기억해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해본다.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던 그날처럼 다시 만나는 나에게도 인사를 건네줄까.

메모해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첫 수업 때 보았던 얼굴의 낯성을 기억한다. 그리고 더 많은 표정을 보여 줄 ○○이를 생각한다. 그 애의 얼굴에서 더 많은 표정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가만히 그 아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건넨 말에 나는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씩스러운 표정을 기억한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더 씩스러워 졌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이가 말한 길지 않은 문장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낯선 땅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경도를 떠나고 아이와 헤어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아이가 한 말을 생생히 담아두고 있을 것이다.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내 미래를 꿈꾸려 한다.



## 동행, 함께 꿈꾸다

강 범 석 | 남해소망의집

### 꿈을 잃고 헤매다

너는 꿈이 뭐야? 주위의 만류에도 고집대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저에게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졸업해도 할 일이 없을 거야, 요즘 누가 글을 읽는다고, 처음 보는 사람조차 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꿈이 무엇이나고 물어오는 것은 차라리 핀잔에 가까웠습니다. 작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냉대에 맞설 만큼 작가에 대한 꿈이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고민 끝에 얻어낸 꿈이 아니라 단순히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목표였습니다.

어영부영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길을 열심히 나아갈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몇 번의 습작 활동을 거치면서 제가 글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작 수업에서는 항상 낙제점을 받았고 펜을 잡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꿈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한 마음을

달래려 무작정 대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갖은 동아리 활동과 봉사를 병행하며 매주 수십 명의 사람과 교류하고 경험을 쌓았지만 이내 시들해졌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툭 건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세운 꿈과 목표는 철없고 안일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없이 ‘누가’ 되리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즉,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어설픈 사랑 이야기나 자의식적인 글만 늘어 놓는 제게 하루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글을 쓰고 싶은가?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마감 시간에 쫓겨 떠오르는 대로 급하게 써낸 것이 제 글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며칠이 지나서도 질문에 답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한 채 공연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정처를 잃고 떠돌던 22살의 초여름, 훈련소를 거쳐 사회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스스로 편견이 없기로 자부했지만 막상 장애인 복지 시설에 발을 들이니 떨떠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간 가까이 접해보지 않았기에 시설 내 풍경은 생소하고 어색했습니다. 다가가면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걸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마치 초여름의 열병처럼 아찔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 익히 보던 어두컴컴하고 침울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설 거주인

모두는 하나의 가족 같은 화목한 공동체였고 저를 조건 없이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몇 주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도와 종종 장애인들의 식사나 목욕 등을 지원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 역할로 일했습니다.

일에 익숙해지자 점차 거주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눈에 밟혔습니다. 시설 특성상 대부분 비슷한 생활 유형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과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아왔기에 그것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꿈쩍도 하지 않기 일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문제야말로 글을 읽고 쓰면서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활용해서 일하는 동안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모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간단한 계획을 들은 사무국장님은 반색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침 시설 안에 시를 쓰는 거주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몸으로 4년이 넘도록 102편의 시를 써서 곧 시집까지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담당해서 잘 이끌어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 누군가를 위한 시

첫 임무는 시집에 실릴 시의 교정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집의 감수를 맡은 등단 시인이 먼저 확인한 것을 오타자나 맞춤법 등을 재검토하면 되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보다 두꺼운 종이 더미를 받아들고 집에 와 시를 읽었습니다.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가슴이 아파 쉽게 종이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내 마음, 천국에 있으니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내 마음, 천국에 있으니  
세상에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 「기도」 中 -

시에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날 선 한탄도, 건강한 몸에 대한 안타까운 동경도 있었지만 오히려 따뜻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씨는 자기에게만 바쳐도 모자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왔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에 담은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듯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저도 남들보다 그리 평탄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게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아픈 과거만을 강조해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치기 어린 글들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게 글은 수단 그 이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 마음 한 편 프로그램, 진심을 담다

시집을 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씨는 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책을 읽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J씨의 시도 내용은

물론 좋았으나 문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함께 공부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무국장님과의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마음 한 편’으로 정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완성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수업 계획을 짜야 했는데 교수법을 배운 적이 없어 기록지가 없었습니다. 과외나 교육 봉사 등으로 남을 가르쳐보기는 했지만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책자와 선생님들이 챙겨주신 자료를 참고해 겨우 완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시작하자 ○○씨가 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학습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한 탓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비유조차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수업 방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과 공부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시 이론을 주입시키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씨에게 필요한 것은 시야를 넓혀줄 다양한 경험과 독서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바깥을 나갈 수 없는 J씨는 견문이 넓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 여러 시를 함께 읽으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수업도 일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 감상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씨도 한결 수월한 듯 보였습니다. 매주 시를 한 편씩 써오면서도 쓰고 싶은 것이 자꾸 생긴 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하다 물었습니다. ○○씨는 왜 글을 쓰세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씨라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을 거친 후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스키도 타고, 소풍도 가고, 마음껏 쓰다 보면 몸이 아픈 것도 잊게 돼요.”

○○씨에게 글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과 그 진심이 여전히 반짝이는 하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새까맣던 머릿속에 형광등이 켜지듯 무엇인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수시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던 다짐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제게 작가가 된다면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그들 곁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문학을 하고 싶습니다. 스무 살의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합격을 위한 허울뿐인 말이었지만 그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일 년이 가까운 시간을 ○○씨와 보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 위주로 바라보던 세상이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들이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들은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 운명처럼 꿈과 재회하다

○○씨와 함께 공부해온 것들은 제게도 상당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펜을 들어 그들의 모습을 글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에 관련된 칼럼을 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제로 기사를 씁니다. 완전히 어긋난 줄 알았던 작가의 길에 다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글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여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그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J씨와 그의 시를 만나게 된 것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조 업무만 수행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주인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만 하는

정도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미리 정해져 있었던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씨의 꿈은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시집을 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씨는 한국 문인 협회 등단을 목표로 오늘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묵묵히 여러 소수자를 위한 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와 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글이 막힐 때면 언제든 찾아가 영감을 주고, 서로 글을 읽어주며 성장해가는 어엿한 파트너입니다.

## 동행, 함께 꿈꾸다

사회복무를 위한 2년이라는 기간은 제게 일종의 마라톤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3개월을 넘겨본 적 없을 만큼 저는 지구력이나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막상 일을 벌여놓고는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성정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주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어떻게든 참고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몇 차례 고비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귀찮다. 무엇을 바라고 열심을 쏟아야 하는가. 수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거나, 여전히 제 글이 탐탁지 않게 느껴지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이끌어준 것은, 어느새 제 옆에서 발맞춰 함께 뛰고 있는 ○○씨였습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며 써온 시를 꺼내 놓는 ○○씨를 보면 감히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계속 달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경주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언젠가 도착지점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의 프로그램도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한, 서로 부대끼고 의지하며 앞으로 한 발 전진할 것입니다.



## 손을 잡는다는 것

박민혁 | 디차힐

조금씩 나른해지던 2시쯤, 찾아오는 졸음을 겨우 견뎌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은 신발이 복도를 걸으며 나는 소리. 머릿속에 노란 유치원 가방을 등에 맨 채로 선생님의 손을 의지한 채 특유의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오는 아이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 집니다. 반가운 마음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마음에 잠시 복도를 바라보며 서있었습니다. 왠지 그렇게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가 복도로 걸어 들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016년 12월 병무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지망으로 신청했던 디차힐에 선발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집에서도 가깝고, 복학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에 가게 된 것이니 분명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 한편에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복지시설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라면 응당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설 새 없이 달려왔던 2년, 그러나 제가 손에 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좌절뿐이었습니다.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2년동안 제가 속으로 되뇌며 저를 억누르던 말은 견딜 수 없는 무게의 고통이 되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주위에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들 저보다도 힘든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복지시설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2년에 대한 불안이 되었습니다.

## 불안이 현실이 되다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설의 모든 사람들이 제게 정말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닫힌 마음은 쉽게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말을 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했던 저는 아이들과 마주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피했고, 정말 피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되면 웃음을 잃은 채 아이들의 인사를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애초에 이제 막 시설에 온 낯선 사람인데 웃지도 않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런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근무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질책했습니다. 질책은 또 다른 우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우울은 다른 우울을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려만 갔습니다. 앞이 캄캄해보이던 디차힐에서의 생활은 ○○이를 만나면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 아이와의 첫 만남

아직 여름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가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오느라 조금은 지쳐 있었던 제 귀에 시설을 떠나갈 정도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울음에 쏟아내듯 선생님 손을 잡은 낯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아이와 마주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내가 울렸다는 듯이 엉엉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했던 첫 인상처럼, ○○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도 못했으며,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는 자폐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로 오기 전까지 좋지 않은 보육환경 속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검사도 받은 적이 없던 ○○이었기에, ○○이가 정확히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족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들은 ○○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은 첫 날 그토록 울었던 건 잊은 듯 즐겁게 웃기도 하고 온 몸을 흔들어 즐거움을 표현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이는 첫 만남의 인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더 크게 울었던 아이. 그 기억이 ○○이를 마주칠 때마다 저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 ○○이를 선생님 대신 잠시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30분 동안 자전거를 끌고 다니기도 했고, 아무거나 꺼내고 다니는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는 제 통제를 벗어나서 회의 중인 사무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자마자 혼자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황급히 자신의 손을 제 손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뺏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와의 관계는 제가 소집해제를 하는 날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 손을 잡다

올해 초 매우 추웠던 날로 기억합니다. 청소를 막 마치고 관리실에 들어 가려는 저를 간호 선생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가 유치원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했습니다. 간호 선생님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며 간호 선생님이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시간을 보낼 것을 찾던 제 눈에 우울증 자가 진단 팸플릿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30, 33, 36... 점수를 계산해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와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휠체어 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수속을 밟으시는 선생님 대신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게 손을 뻗다가 문득,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이가 싫어할 텐데. 그렇게 제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제 차가운 손에 느껴졌습니다. ○○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쥐었습니다. ○○이는 훌쩍이며 제 손을 잡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날 밤 침대에 누워 오른손을 하늘 위로 들고는 한참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왜 내 손을 잡았던 걸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였을 겁니다. ○○이의 눈앞에 마침 내가 서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의 조그만

손의 온기가 제게 알려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건 나였구나. 위로가 필요했던 건 나였구나. 도움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건네준 위로가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 소중한 발자국

○○이의 마지막 수면 뇌파 검사가 있기 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가 처음 시설에 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보육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일반 아동 보육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게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는 유난히 검사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두 차례의 검사 때는 암전하게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는 검사실이 있는 복도에 있는 것조차 싫은 듯했습니다. 검사를 위한 약한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이는 잠들기는커녕, 자꾸만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간호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검사 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랑 한 바퀴 돌다 와도 돼요.”

○○이의 손을 잡고 2층을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았습니다. ○○이는 좋아하지 않는 검사실을 나오자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이제 슬슬 검사실로 가야 할 시간이 되어갔지만, ○○이는 조금 더 걷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조금 더 걸어도 되겠지. 그렇게 제 기억 속에는 그 날 ○○이와 걸었던 발자국들이 소중한 자국으로 남았습니다.

봄이 찾아올 무렵, ○○이는 저희 시설을 떠나 장애아동 보육 시설로 갔습니다. ○○이가 처음 온 날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이의

모습. 그리고 떠나던 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던 ○○이는 떠나는 날, 선생님들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정도로 변해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간 곳에서도 아마 첫 날은 많이 울었겠지요.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금방 적응해서 좀 더 많이 웃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소중한 자국으로 남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항상 쫓기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하고, 위로를 줘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사실에 항상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주저 앉아있던 건 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가 알려주었습니다. ○○이의 손이 말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손과 한 사람의 손이 만나 맞잡는 것이라는 걸요. 도움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의 작은 손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물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돌아왔나 봅니다. 처음엔 이름도 몰랐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목소리만 들려도 머릿속에 누가 말했는지 얼굴이 그려집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 기억 속에 소중한 자국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기억 속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이들과 함께한 기억들이 아로새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아이들의 기억 속에 소중한 자국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복무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의 등불이 되자

서 호 성 | 울산과학기술원

### 꿈직했던 사고, 꿈의 높이를 키우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1번째 생일을 맞는 그날의 사고를 잊지 못한다. 밤늦은 시각 귀가 중에 음주운전 중인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쇠골이 부러지고 꿩볼이 잘리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약학전문대학원 입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당장 수술대에 오른 나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깁스를 한 채 응시한 시험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험에 떨어지면 곧바로 현역입대를 결심했지만 설상가상,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얻었다. 화장실 가는 몸도 다스리기 힘들었던 나는 휴학신청서를 내고 병실에 누워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에 자신이 있어 특전사 훈련 동영상을 챙겨 보며 국방의 의무를 다짐하였던 내게 재 병역판정검사 후 4급 보충역으로의 전환은 그리 달갑지 않았었고, 주변 친구들의 현역입대와 당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나를 더욱 작아지게 했다.

약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 하는 사람이 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꿈의 높이는 점점 더 높고 멀어지는 것 같았다.

울산대학병원 병실에 누워 당뇨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 허리가 불편하신 할머니 곁에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 병역의 의무라 하면 현역병만을 떠올렸었고, 국토방위를 위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했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할머니를 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퇴근하던 사회복지요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업고 인근 보건소로 뛰어가 어린 생명을 구하는 등 사회복지요원의 선행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사고의 전환과 꿈의 원동력이 되어 약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도와주었다. 이후 약사고시 시험에 합격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울산과학기술원'에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근무배정을 받게 되었다.

## 누군가의 우상이 되다

군사교육소집을 받았을 때의 일이다. 훈련소에는 몸이 불편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많이 있었다. 한 친구는 밤에 불면증을 호소하여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훈련소라는 특수한 환경의 변화와 빠듯한 훈련일정 탓인지 불면 증세를 심하게 느꼈고 자기 전 1알 복용하는 약을 4알을 과다 복용하여 다음날 구보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는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안정을 취하게 했고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아 큰 사고 없이 수습이 되었다.

이 후 상담결과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복용중인 약에 대해 정확한 복용지도를 해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자기는 할 말이 없다며 편지쓰기를 거부했던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고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울면서 “형은 저의 은인이자, 우리의 우상이에요”라고 말 해주던 그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짧았던 4주간의 훈련소 기간동안 소대장 훈련병으로서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가 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09년 설립이후로 2017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총 9명의 요원들이 홍보팀, 문헌정보팀, 생활지원팀, 구매팀 등에 배치되어 행정 및 행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는 예비군 대대 소속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자원을 관리하는 행정보조 업무를 하며 9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맡고 있다.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기에, 나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다양한 복무 여건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복무중이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그릇된 근무행태로 울산과학기술원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비난 받을 일이 없도록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작년 가을 한 복무요원이 왔을 때의 일이다. 우울증과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던 친구로 평소 말이 없고, 웃지도 않으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었다. 앞서 훈련소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경험한 적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얘기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남들에게 실망만 주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 최근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현재 복용중인 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용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며 마음에 가진 부정적 정서를 대화를 통해 표출하도록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평소 병원 이외의 집밖 외출은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부모님과 잦은 다툼으로 자기 방에서만 생활한다고 했다. 근무생활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복무기관장님께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분할 복무를 승인해주셨다. 그 친구는 현재까지 꾸준한 심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호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근무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 및 선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요원의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복무요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았다. “힘들고 지칠 때, 자살충동을 느낄 때면 언제든 형에게 전화하렴...”이라고 해주었던 말을 그 친구가 기억해줄지 모르겠다.

내가 속한 곳에서의 나의 작은 노력이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에도 타인의 고충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나는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요원이다.

내가 근무하는 책상유리 안에는 세 개의 이정표가 놓여있다. 이는 사회복지요원 현장, 대표자 임명장, 복무기본교육 우수자 표창장이다. 매일 출근 후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세 개의 이정표를 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슴에 새기곤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자’는 나의 꿈과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회복무요원 현장의 내용은 우연히도 일치했다. 끔찍했던 교통사고를 겪고 병실에서 무기력한 시간만 보냈던 나의 지난 경험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다가갈 수 있었던 어려운 친구들에게 아픔을 공유하고 극복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던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사회복무요원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과 보람,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퇴근 후 매일 수영과 헬스를 하며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약학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후배 사회복무요원들을 선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대장 훈련병,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기본교육 학생대표를 하며 지냈던 2년간의 사회복무요원의 경험은 나아가 약사로서,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발판이 되어 주리라 확신한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디서 복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복무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 출동해봄직 하지 아니한가

✿ 기다림을 향한 힘찬 발걸음 ✿

최혜성 | 삼척소방서

안녕하십니까? 삼척소방서 사회복지무원 최혜성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방서와 병무청에 문제아로 소문나 있는 그 유명한 최혜성입니다. 그런 저에게 우연한 기회로 소방서에 사회복지무원을 담당하는 분께서 체험수기 공모전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 주셔서 글을 적으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싶기에 저도 한번 도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소방서에 복무하며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나를 부르는 출동 벨소리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가을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던 무렵, 구조출동~♪ 구조출동~♪ 신악 구조출동을 알리는 벨소리가 소방서 전역에 퍼졌습니다. 출동 벨소리는 늘 긴장감을 가져다줍니다. 쿵쿵쿵쿵 되는 가슴이 안정되는 것은 소방 현직 분들도 몇 년 차는 지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신기하면서 남들과 다르게 구급출동은 긴장이 되지만, 특히 화재출동이나 구조출동의 경우는 긴장감 보다는 얼른 현장에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큼니다.

그 당시 산악구조 상황은 산속에 실종자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조대원, 구급대원, 의무소방, 사회복지무요원인 저를 포함하여 산악구조 출동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긴장감 속에 출동을 하였고, 저는 그날은 솔직히 큰 부담감 없이 현장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점점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쯤 경찰대원분들과 마을 주민 실종자 가족이 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길가에 모여 회의(會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종자가 만약 사망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을 구보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산속을 올라가면서 부담감 없이 출발한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악 구조 코스는 평소 등반과는 다르게 다각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혹시나 위험에 노출 될 것을 대비해야하므로 긴장감과 부담감이 동반됩니다. 저는 이번 출동에 마치 'KBS 9시 뉴스'의 한 장면처럼 살살이 수색을 하듯이 폼을 내며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0kg에 육박하는 분리형 들것을 들쳐 메고 올라가는 산악 실종 구조는 너무나 힘이 들어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애타게 ○○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 혼자 포기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 불러도 답이 없는 산속 메아리

산 중턱에 올라 가족분들께서는 오열하며 실종자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아리는 울려 퍼지나 대답 없는 그 메아리는 저의 눈가를 촉촉히 적셔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르고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휘부는 수색견을 투입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다른 소방서의 구조대원분들까지 투입되면서 상황은 더 긴박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길이 없는 산속에서 그렇게 모두가 지쳤을 때 쯤, 생수조차도 모두 소진되어 갈증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계곡물에 목을 축이고 다시 산악구조를 재개하였습니다. 산악구조는 그 특성상 해가지게 되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몰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은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 구조상황에 투입된 소방관분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에 하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내 남편을 놔두고 어딜 가란 말이나'

모두들 선뜻 발길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분께서는 '내 남편을 놔두고 어딜 가란 말이나'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지만, 모두의 진심 어리고 용기 있는 설득으로 함께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어둠이 치달아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더욱더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 가야할텐데... 어둠만 깊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다 물이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가족분들과 모든 대원분들은 그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갔으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점점 어두워져 모두가 지쳐갈 무렵 저기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실날같은 희망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민가를 발견한 우리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옷가지를 털어내며 다음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는 도중에도 옆에서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보여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해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펍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방서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밤이 다되어 도착을 하여

샤워를 하면서 실종자를 찾지 못한 마음에 그 가족분들께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분들께서 이렇게 힘들고 뜻깊은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에 숭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출근을 하였는데,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실종자분께서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병병하여 믿기지 않았고 정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서 믿기 힘들면서도, 기쁘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여 소방대원분께 여쭙 보니, 실종자 분께서 버섯을 캐다가 날이 어두어져 산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에 집에 갔다는 약간은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구조 활동은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산악구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때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보직이 방호구조과로 배치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CPR(심폐소생술)교육을 지원하고, 하루하루 보람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각자가 다른 시설에서 복무를 하지만, 소방서를 선택하려는 예비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뜻깊고 보람차고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어제도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김 태 현 | 한국철도공사 신창역

## 인생의 밑거름이 된 사회복무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 16일부터 한국 철도 공사 신창역에 배치 받은 김태현입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다한증으로 퇴소 후 신창역으로 다시 배치 받은 저는 솔직히 말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역을 가지 못하고 대체 복무를 한다는 것, 단지 ‘대체’라는 한 단어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창역의 사계절을 보내고 푸른 여름을 기다리는 지금, 그때의 저를 떠올려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도움을 받기만 했을 뿐, 도움을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별다른 관심도 없던 제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1년 10개월, 길고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책임감 하나로

2016년 10월,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역이 조용해지고 선로 뒤 푸른 나무들에게 시선이 가는, 여느 때와 다른 없는 신창역의 낮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의 풍경,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가로운 승강장 사이로 놀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한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외국인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머리와 입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역무원에게 응급차를 불러 달라 하며 그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사교육소집에서 배웠지만 처음 실시해보는 심폐소생술에 ‘이 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그래도 꼭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통한 것인지 3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그 분이 깨어났고 이후 응급차를 타고 이송 되었습니다. 그 분이 떠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긴장이 풀리며 제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복지원들이 많겠지만, 사회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억에 남는 유실물

1호선 종착역에 근무하는 저는 역 특성상 가방부터 침대, 텐트까지 정말 다양한 유실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겨울, 출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사회복지무원 때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전화가 왔고, 서툰 한국어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여권,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다며 간절함이 너무나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외국인은 그 가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꼭 가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이 타고 있었던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승객들에게도 물어보며 한참을 찾아다녔고, 허나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갔구나, 그 외국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하며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열차 구석에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새내기 사회복지요원이라 더 그랬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수학여행에서 마지막 남은 보물을 찾은 것 보다 더 기뻐던 것 같습니다. 얼른 그 외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고, 그 분을 만났습니다. 걸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옷차림을 보니,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만원을 주시려 했습니다. 타지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그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또한 유실물 하나하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 정신이 번쩍 든 하루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복무 한지 어느덧 1년 11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신창역은 공기 좋은 시골에 위치한 만큼 노인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고, 그 전화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할머니께서 곧 역에 도착하니 전철 타는 곳까지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할머니께서 오실 시간에 맞춰 입구로 나가있었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제 팔을 잡고 함께 걸어 가며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죠?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서울까지 전철로 다닐 수 있는 게 모두 당신들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사무실과 승강장을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은 저는 사실 그런 도움의 요청 또한 더운 날 승강장을 다시 가야 하는 귀찮은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저의 행동이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서울로 전철을 타고 가는 그러한 평범한 일조차 불의의 사고로 또는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격려와 감사를 전해주시니, 지금껏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도움의 요청이 오면 누구보다 밝게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신창역의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 뜻 깊은 야간 근무

전철 역 근무는 다른 사회복지무원과 다른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간 근무입니다. 벌써 1년 10개월 쯤 하고 있는 야간근무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느라, 만취한 사람, 노숙인 등 여러 사람들을 응대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습니다. 야간 근무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 제일 마음이 쓰였던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막차를 보러 나가던 와중 역에서 방향하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마중 나오신 걸까 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남루한 행색에 혼잣말을 하며 돌아다니셨습니다.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어도 저를 피해 혼잣말을 하기만 하셨습니다. 빨리 마감을 해야 하는 터라 다른 업무를 마무리 할까 고민도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누워서도 그 할아버지를 찾아다닐

가족들 생각에,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경찰은 할아버지 가족과 연락이 닿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 드렸다는 연락을 해왔고 가족들이 정말 감사해한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때까지의 야간근무 중 가장 늦게 잠들었던 밤이었지만, 피곤함이 다 날아간 듯 어느 근무보다 뿌듯했던 날이었습니다.

## 지난 사회복무를 되돌아보며…….

제 첫 사회생활이라 볼 수 있는 2년 가까이 사회복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려 하니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인생에 있어 항상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올까’ 하며 탓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찾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점, 도움을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몰랐던 제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창역에서의 첫 몇 달간 또한 야간 근무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며 힘들다는 불평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께서 건넨 감사인사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작게는 유실물을 찾아주는 것부터 크게는 사람을 살리는, 가슴 따뜻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법을, 앞장서는 법을, 남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끝마무리가 좋아야 그 전체가 좋다고 하듯 얼마 남지 않은 복무 기간 하루하루 더 나서서 일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저도 그랬듯 ‘대체’ 복무라는 타이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저와 같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언제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그리고 사회복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들의 미소에서 나의 미소로

차 대 건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장밋빛으로 가득하진 않지만 장미가 없진 않다.

이젠 희미해진 신청일, 사실 내가 어디에 지원했었는지 또 지원한 곳마다 왜 지원했었는지조차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내가 본 결과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고 별생각 없이 난 훈련소를 거쳐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글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무난하다?” 정도일 것이다. 나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에 특이한 질병을 앓고 살아왔고 무수히 많은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파해 봤기에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 경멸, 신기함 등의 시선이 아닌 사람에서 사람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첫날 앞으로 내가 2년의 시간을 보내야할 복지관을 방문하고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다. 평범했다. 그때 1층 오르막길에서 동굴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고 그곳엔 내가 평범하게 바라봐야 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장애인이 방방 뛰면서 소리를 내질렀고 나의 시선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선으로 변해있었다.

그 후 얼마 안가서 내가 곧 배치될 통합사례지원팀이라는 부서에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해당부서의 사회복지요원의 주 업무는 목욕이었다. 나는 처음에 무척이나 싫었고 다른 부서로 가고 싶었지만 이미 관계자들에 의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목욕사업은 겨울을 제외하곤 목욕차량을 통해 진행되나 당시 겨울이어서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목욕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처음 방문했던 집의 풍경. 비유하면 여름철 깨끗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의 코를 찌르는 소변냄새, 숨이 턱턱 막히는 곰팡이냄새, 방바닥에는 말라버린 채로 선명하게 그려진 지도와 같은 오줌자국. 나뉠구는 수많은 머리카락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널려있는 옷가지들...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렸던 내 첫 목욕대상자의 몸, 신체.

그는 여느 중년 아저씨와 다름없었다. 단 그의 몸이 너무나 작고 말랐다는 것을 빼고는. 배를 제외하곤 앙상하게 마를 대로 말라 마치 유니세프 tv광고에서나 봤던 팔, 운동을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없던 허벅지. 그리고 처음 본 나를 향해 인사를 하고 싶지만 나오지 않는 말을 대신하기 위해 힘쓰던 안면근육까지.

어찌어찌 목욕 과정은 선배 사회복지요원의 도움으로 잘 마쳤었다. 손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옷을 벗기는 법, 이용자를 들어 올려서 의자에 앉히는 법, 물 조절 하는 법, 이용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물 뿌리기-머리감기-몸 비누칠-때 벗기기-물 행구기로 이어지는 순서, 옷 입히는 법등을 배웠다. 다 끝나치고 나니 눈이 빠근했었다. 나는

피곤하면 눈부터 빠근해지는데 바로 눈이 빠근해졌고 또 온몸이 피로해졌다. 인사를 드리고 목욕을 시키기 위해 벗은 옷을 대충 입고 현관문을 향해 가려하는데 그때 대상자가 나한테 활짝 웃어줬었다.

사람의 미소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의미를 준다. 그때의 그 미소는 여러 것을 의미했을 수 있다. 내가 오기 이전부터 목욕을 받으면 감사의 의미로 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말을 못하기에 인사대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의미는 너무나도 값졌다. 그의 미소가 너무 해맑았기에, 봉사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시간 채우기만 한 사람이어서 봉사를 하고 쌓아진 시간을 보면 느낀 보람이 아닌 인간으로 느낀 보람이기에, 무언가 내가 tv에나 나오는 선량한 봉사자가 된 것 같기에 너무나도 좋았었다. 물론 미소 한 번으로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거나 횡수를 더 늘리고 싶거나 그 집에서 나는 냄새마저 좋아졌다고 말 할 정도로 나는 도덕적이거나 가식적인 사람은 아니다.

다만 그때 나는 ‘목욕이란 것이 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목욕날 내가 목욕할 때만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대상자 중에서도 목욕을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좋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니다. 위에 서술한 일 다음 얼마 후 다른 집을 갔을 때는 ○○씨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 분은 내가 복지관에 오기 전부터 사회복지무원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셨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어디 말에 딱 부합하신 분이셨다. 사회복지무원이 목욕서비스를 오면 마치 자기 노예인줄 아시는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셨고 심지어 가벼운 수준을 넘어선 성적 농담도 하시는 분이셨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던 것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날도 방문했을 때부터 툭툭대셨고 사회복지사는 그분을 잘 알기에 자신이 그분을 맡아서 목욕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제대로 닦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 닦기만 3~4번을 넘게 시켰다. 물론 제대로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리고 정말 사사건건 하나하나 불만을 말하셨지만 사회복지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 농담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목욕서비스에서 제외되셨다. 위에 내용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분이 혼자 목욕을 어느 정도 가능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이전에 사회복지사가 물기와 다 쓴 수건,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목욕했다.”라고 말하고선 “혼자서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점들을 보아 목욕이 가능하고 언행이나 태도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 변동사항을 겪다가 이용자 세 분으로 확정되고 사회복지무원이 줄어 팀에 사회복지무원은 나 혼자 남게 되어 사회복지무원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찌는 여름에 차량으로 단 둘이서 목욕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겠지만 다행히도 근처 군부대에서 2명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했다.

남은 세분은 처음 서술한 신체장애 한분과 하반신마비 한분, 지적장애 한분 이셨다. 우선 처음 분은 후에 처음 내가 만났을 때보다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복지관에서 시청에서 제공하는 생활보조도우미를 소개해줬고 덕분에 집은 훨씬 청결해졌고 우리도 더 나은 환경에서 목욕시켜드릴 수 있었다. 또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언덕이라 차로 올라가기 힘들었던 점, 목욕시켜 드리고 난 후에 항상 걸어드렸던 십자가 목걸이들이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 분은 하반신을 잘 못 쓰시는 노년의 남성분이셨다. 처음에 그분은 툭툭대시고 까칠하셨습니다. 근데 딱히 의도 하진 않았지만 목욕시켜 드리면서 그저 하시는 얘기만 잘 들어드리고 맞장구만 몇 번씩 쳤을 뿐인데 어느새 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 목욕을 못 가면 사회복지사가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일 잘하는 키 작은 애 안 왔냐?”

라고 물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도 들었다. 그리고 항상 끝나면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신 것. 집 앞이 비포장도로라 울퉁불퉁한 승차감, 사람만 보면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던 황구도 기억난다.

마지막 지적장애 및 복합장애 한 분은 제일 해맑으셨다. 사전에 연락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부탁드린다며 인사하고 잠시 나가시는 활동보조인, 들어가면 보이는 광경은 온전히 걷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걸어오며 환하게 미소 짓고 두 팔을 쭉 뻗어 포옹하려던 그의 모습이 생각난다. 청각장애도 있으셔서 보청기를 빼고 몸에 두드리기 같은 것이 나서 천연비누를 쓰셨고 게임을 좋아하셔서 고스톱이나 장기 등도 설치해드렸었다. 그리고 항상 목욕이 끝나면 포옹해주시고 냉장고를 뒤져서 요구르트나 두유 등을 안 먹는다 해도 억지로 주셨다.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늦게 끝나는 힘든 일이었다. 하고 나면 불면증도 치유될 수 있을 듯이 줄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모두 목욕을 받으면 너무나 밝게 웃으시며 감사하다고 말해주시고 또 각자의 방법대로 감사함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처음엔 그냥 군부대에서 탈출하고 싶어 봉사 나온 군인들은 마음이 따스해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전부 말했고 두 분을 목욕시키고 점심에 먹는 4000원 짜리 한식 뷔페는 너무나 꿀맛이었다.

현실은 만화나 게임이 아니기에 내가 힘들면 미소를 받는다고 피로가 사라지거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올라가거나 좋아지진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또 만화나 게임보다 더 복잡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 영향을 준다.

그날의 컨디션, 기분, 정서 상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인간관계,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에게 목욕을 제공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많은 뿌듯함을 느꼈고 내가 쓴 시간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것을 먹었고 많은 곳을 봤기 때문이다.

또 기관을 온 후 첫날의 나의 시선은 다르게 바뀌었다. 더 이상 그들이 신기하게보지 않는다. 목욕을 하며 나 자신이 달라져서일까? 그리고 나의 달라진 이 시선으로 그들이 혹시나 나의 시선을 의식하더라도 상처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이제 목욕서비스는 중단되었지만 나는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보조를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목욕을 통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을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뿌듯함을 모르기에 의지도 별로 나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도와줘서 얻을 뿌듯함과 내가 그들로부터 받을 미소도, 내가 그들에게 지어줄 미소도 기대된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동목욕은 2017년 12월 말로 활동보조 시간을 통한 전문 인력 연계로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저는 이동목욕의 보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현재는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 및 재가 장애인 밀반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직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것이 완벽 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우선 장난을 좋아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웃을 때 매우 귀엽습니다. 다른 친구는 매사에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지만 말장난을 좋아해서 말장난할 때 자주 웃습니다. 머리를 묶은 다른 소녀는 잠이 많지만 깨어 있을 땐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또 다른 여자아이는 매우 활발하지만 심술을 곧잘 부리곤 합니다. 어떤 친구는 지하철이나 버스, 세탁기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음성을 거의 완벽히 외웠습니다. 현재 우리반 아이들 소개를 끝으로 이상 저의 활동설명을 마칩니다.



## 길게 보면 사랑스럽다

송 태 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조금 ‘다름’ 뿐. ‘틀린’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

장애인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나는 한때 그들을 스스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사회에 적응이 힘든 부적응자라 생각했었다. 아마 많은 비장애인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케인(흰 지팡이)을 바닥에 두드리며 걷는 사람, 다리를 절어 걷는 것이 힘든 사람, 환청이 들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등 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살아오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느껴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장애인식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이고, 사랑받는 친구이자 친근하고 따뜻한 이웃주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랑 ‘틀린’이 아닌, 조금 ‘다른’ 그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이 차이 날 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1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그들의 속도로 발맞추어 걸어가면서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 시작은 미약. 과연 나의 끝은 창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자는 약 250여 명. 날마다 다르지만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가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다. 오전의 주 업무는 이들에게 식권을 드리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일 자체는 어렵거나 힘들지 않지만 훈련소를 막 수료한 까까머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니 내 이름도 모르나?”

“네 저 오늘 처음 와가지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이용자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은 실룩실룩 뺐다.

“와..이이 임마 이거 뭐고? 내가 여기 12년을 다녔다 12년!! 외워놔라 박○○”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선임요원이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가장 먼저 외워질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암기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중에 알아보니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용자였는데 치매가 같이 와서 그런 증상을 자주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 네가 뭘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듯,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복무 초반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앞이 막막하기만 했다.



## 사소한 한마디, 사소하지 않은 변화

첫 날의 강렬했던 인상은 접어두기로 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맡은 업무 위주로 착실하게 해내며 2년을 무사히 보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려 노력했고,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 닿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지 못하고 있었다.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을 열게 한 건 다름 아닌 이용자였다. 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아버님이 한 분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 띤 밝은 얼굴이 인상적인 분이었는데 어느 때처럼 그날도 식사를 하러 오셨다. 그날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날이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인사 한마디와 함께 식권 값을 건네주셨다.

“돈 안주셔도 돼요. 오늘 식권 무료예요.”

“와 그렇노?”

“아버님 기분 좋으라고”

툭 던진 농담에 진짜 기분이 좋아지셔서

“그라믄 태민이 니 고생하는데 그걸로 커피나 하나 뽑아무라”

“아..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은 뭐 그 정도로 고마워하냐는 미소를 지으시고는 식당으로 올라가셨다. 이번에도 그 뒷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았다.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닌 한마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이루어 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동안 복지관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 차츰 나를 복지관의 선생님처럼 대해주고 마음을 열어준 이용자들과 달리,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웠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내 마음의 안개였다.

## 진심은 언제나 옳다

눈과 귀를 막고 있던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고, 시선이 달라지니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예전처럼 이 사람들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웃음만 띄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진심을 담아, 마음과 온기를 담아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저장되고요. 이걸 누르면 다시 전처럼 돌아와요.”

“와 잘하네, 니 기술자가? 왜 이렇게 잘 아노?”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다고 기술자로 띄워 주시는 아버님, 팩스를 보낼 줄 몰라 부탁하면서 바쁘는데 방해한다고 미안해하는 어머니, 휠체어 바퀴에 바람을 넣어드렸더니 이제야 타는 맛이 난다고 기뻐하시는 할머니. 별 것 아닌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곧 나의 자긍심이 되어 돌아왔다. 매사에 소극적이던 내게 자신감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고, 자연스럽게 복지관에서의 근무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 당신은 내 삶의 일부, 나는 당신의 친구

우리 복지관 4층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응을 도움)를 운영하고 있다. 오후에는

선생님들을 도와 이들의 활동을 돕고 송영 때는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지원을 나가고 있다. 복무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을 할 때마다 내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부터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지내다보니 그들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 웃을 일이 많아졌다.

“○○아 ○○쌤 좋아?”

“아니예요”

“○○쌤은 좋나?”

“아네요”

○○이는 자주 혼나서 그런지 손을 휘저으면서 선생님들이 싫다고 했다. 내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난치듯이 “음..아니예요”라고 답하고는 막 웃어댔다.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조금 얄미워서 나도 장난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쌤은 ○○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해서 얘기해줘야겠다.”

“아네요!! 으어영 아니예요!!!”

다급해진 ○○이가 내 손을 잡고는 그러면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왔다. 웃음을 겨우 참으면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 말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려 처음에는 정신사납고 시끄러운 이미지였지만 보면 볼수록 귀엽고 매력이 넘치는 친구다. 그 순수한 웃음은 행복 그 자체였고, 한때 이들을 불쌍하게만 바라봤던 내가 오히려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반성도 되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이 있다. 미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었던 나의 복무기간도 1년이 다 되어간다. ‘남은 기간을 앞으로도 성공적이고 창대하게 마무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준다면, 그렇게 복지관이 필요로 하는 소금 같은 존재로 거듭난다면, 내가 성실히 근무해서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좋은 인상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창대한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 하루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이자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회복지무원을 넘어 그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생각하며

강 선 우 | 이동행정복지센터

### 지방선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2018년 6월 13일, 직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직후에 개막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가 넘는 기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동네와 밀접하게 소통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그리고 교육감까지, 또한 전국의 열두 곳에서는 공석이 된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면 각자가 7~8표의 표를 행사하는 큰 규모의 선거였습니다.

우리 고장인 경기도에서는, 선거 준비 과정을 놓고 몇 가지 문제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포스터가 누락 또는 순서가 바뀌어 게시되거나,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일부 후보의 공보물이 전달되지 않는 등의 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를 사회복지무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겪지 않았더라면, 비슷하게 선관위의 일처리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선거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 행정복지센터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쓰이는 벽보와 공보물만 해도,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작업의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비단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일들, 소위 지역사회라고 부르는 수많은 일들이 이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가장 말단인 동 행정복지센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종종 '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일상에서 그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행정서류를 발급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단순히 행정민원만을 위해 찾고는 했던 이곳이 바로,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복무하는 저의 근무지입니다.

## 일본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삶

저는 안산이라는 고장에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소를 두고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스무 살을 넘기고서는 8년에 가까운 시간을 일본 도쿄에서 홀로 지내며 한국 사회와는 조금 거리를 둔 채 살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정치학과 행정학을 배우며, 환경문제나 에너지문제, 사회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제 20대를 바쳤습니다.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현지에서 온몸으로 겪으면서 지역사회와 여러 사람들 간의 유대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모든 회원국의 합의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이 채택되었는데, 세계 각지를 누비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준비과정을 추적하며, 또 채택 이후에 각국이 또 지역사회가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일본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비록 신분은 외국인이었지만, 일본 현지의 또래 젊은 친구들

누구보다 더 정치와 현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다한 병역의무를 위해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막상 한국 사회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말단의 행정조직이 없고 시군청과 구청이 일선의 행정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지역의 일을 접하거나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지역의 유대와 연대를 촉진하는 구심점이 없어,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다보니 고독사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고장인 안산에 대해서도, 거리와 건물과 공간만 그대로일 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집영장을 받고, 입대를 앞둔 누구나처럼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2년여 간의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막연함과 두려움을 안고 육군훈련소의 문을 나오자, 저는 지금의 근무지인 집에서 가까운 한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합니다.

근무지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이동은, 제가 어릴 적에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아마도 집과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곳입니다. 익숙한 풍경의 공간이지만, 사실 그 안의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무원으로

지난 1년간 근무하며 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작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입니다. 인구 약 3만여 명이 살고 있는, 소위 ‘중규모’의 동이라는 이곳에는 하루에 대략 200여 명의 사람들이 민원 업무를 위해서 찾아오고, 또 같은 건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그곳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또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직능단체’라고 부르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동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 주민들의 단체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활동하여, 이 모두를 합치면 매일매일 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를 포함한 사회복지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만큼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회복지무원이 하는 일은 동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고 넓은지도 모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민원인들의 민원사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듯, 사회복지무원들도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묵묵히 직원들과 협력하고 뒤에서 지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들에 대한 안내나 행정서류의 정리, 직능단체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의 준비와 지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의 제거나 국토대청결 운동을 비롯한 환경미화활동에 나서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후원품과 지원물품을 전달하러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계절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비해서는 필요한 홍보물과 비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담당 직원과 함께 제 전공과 지식을 살려서 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지역 내의 에너지 절약 계획안을 기획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동의 자세한 사항을 속속들이 알 수도 있었습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토론하여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도, 지역의 실상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을지훈련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대피훈련 때에는 직원과 통장님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설의 어딘가가 고장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도 우리들 사회복지무원입니다. 이렇듯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마다하고 손닿는 모든 곳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 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처음 배치되어 복무를 시작할 즈음에는 더운 여름 땀별 아래에서 매일매일 한 시간 이상을 들여 골목골목마다 나부끼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러 다녀야 했지만, 매일매일 들인 노력으로 이제는 불법 현수막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꽃들을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인근 학교 주변 등에 심고 가꾸어, 주민들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능단체 회원들과 길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할 때, 지역 축제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거나 노인의 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께서 점심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때, 그 외에도 근무 중에 여기저기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웃는 얼굴들을 보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물론, 근무의 모든 순간들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10월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신 민원인이 갑자기 기도가 막혀 응급조치를 취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술에 취해 방문한 민원인이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창구에 방문하는 여러 민원인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어깨너머로 듣고 감정이 이입되어 내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날도 있고, 시정홍보물이나 시책을 접하고 ‘나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며 여러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워가는 날들도 있습니다.

## ‘한 팀’, 그리고 지역사회를 생각하다

물론 이 모든 순간들은, 당연하게도, 사회복지무요원과 직원의 구분 없이, 직면한 일에 한 팀으로써 함께 업무에 임하고 함께 땀 흘리는 모두의 덕택일 것입니다. 그런 ‘한 팀’으로 일하는 순간이 가장 빛났던 때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선거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업무들이 밀려드는 속에서, 저도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수집해서 공유하고 숙지해서, 최대한 한 발짝 먼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백 장의 벽보, 수십만 장의 공보물, 여섯 개의 투표소... 모두가 함께 땀 흘린 덕택에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선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지난 1년이 매일매일 보람차고 배움과 느낌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지난 1년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유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속에 파고들으로써 저도 그 넓은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행정복지센터라는 말단 행정조직의 존재, 통반과 같이 더 작은 단위의 주민간의 조직, 다양한 직능단체와 주민이 참여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개인이 서로 유리되거나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커다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이 동과 같은 작은 지역 단위에 스며드는 것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인식하여 정책으로 옮겨 실행하기에도, 한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 잘 활용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저를 포함한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무원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가장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점은 제게 큰 행운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전체의 일부분으로써 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한 2년간의 경험이 앞으로의 제 인생과 전공, 연구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6월 16일 토요일, 내일은 동네에 열린 매실을 따서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장학금을 마련하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이겠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축제를 즐길 모두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겠습니다.



## 돌이켜보니, 모두 사랑뿐입니다

정 홍 규 | 복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2014년, 찬바람이 불던 밤

“이순덕 할머니, 2014년 1월 23일 오전 12시 81세로 운명하셨습니다.”

급히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그저 우두커니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스무 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이 7번이나 찾아와 긴 투병 생활을 하신 뇌병변 2급 장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향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고,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걸으실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할머니를 위해 어머니는 병원에서 머무르시며 병수발을 드셨고, 저는 주로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이동 시에 부축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한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때 즈음부터

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전공하던 저는, 전공 과목으로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껏 한 번도 해 본적 없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 미처 다 드리지 못한 사랑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근무지를 선택하던 날, 수많은 근무지들 중 제가 선택한 곳은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목록에서 북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사회복지요원을 경험했던 사촌형은 “구청이나 학교에서 복무하게 되면 일도 쉽고 개인적인 여유시간이 많다. 그 여유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자기개발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며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결정은 쉬웠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던 할머니를 그리면서,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2년 동안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1순위로 자원 신청했습니다.

##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 쌤님, 안녕하세요!” 오전 9시 30분, 이용자분들이 센터로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조차도 그 순수함에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한 이용자가 대답 대신 손을 앞뒤로 움직이며 수영하는 흉내를 냅니다. 저도 그 모습을 흉내 내 봅니다. “아 수영! 숙숙! 이렇게? 이제 수영 잘 하겠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어제 뭐 하셨어요?” 복무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대화

참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근무지로 향하던 첫 날,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나는 악취는 저의 코를 괴롭혔고, 이용자들은 제가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면 제 눈치를 보며 슬금 슬금 피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욕설이었습니다. 혼자 외투를 벗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 이용자는 제가 다가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줄 때마다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는 건데 왜 욕을 먹어야 해?’라는 생각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러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고충을 알고 계셨다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센터에 다니고 있는 이용자분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회복지요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제 좀 친해지려하면 가버린다는 걸 다들 알아요.” 아! 그게야 이용자분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 ‘우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 편견을 깨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조금 서툴지만, 사회복지요원도 이용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용자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임으로써 관심을 끌기도 했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히 대하며 저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면, 장애인관련서적을 읽으며 하루하루의 저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올바른 대처법과 개선할 점들을 공부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러한 저의 모습에 이용자분들은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피하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생글생글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가끔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어깨를 주무르며 시원한 안마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이러한 변화를 매일 보고 느낄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편견’의 눈이 아닌 ‘협력’의 눈으로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사회적응훈련이라는 야외활동을 진행합니다. 사회적응훈련이란, 센터 이용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비장애인들과 잘 동화될 수 있도록 영화관, 공원 등의 공공 문화 시설을 체험해보고 버스, 지상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외부활동입니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갖기 드문 이용자분들은 일주일 중 이 날을 가장 기다릴 정도로 사회적응훈련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갈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흠칫 놀라며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정말 이들은 편견처럼 그저 부족하기만 한 존재일까요?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용자분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그들의 예상치 못한 뛰어난 면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K씨는 절대음감의 달인입니다. 옛날 노래부터 최신 노래까지, 도입부의 한 소절만 듣고서도 정확하게 노래제목과 가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들 중 막내인 H씨는 조용한 평소 모습과는

달리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춤을 잘 춥니다. 몸치인 저로서는 그저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용자들 중 가장 엘리트인 J씨는 신문 읽기, 그 중에서도 주식 란과 TV채널편성표 란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J씨에게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시세가 오른 주식을 손으로 짚기도 하고, TV채널편성표를 외워두었다가 정확한 시간에 보고 싶은 TV채널을 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Y씨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누가 오는지 알아채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쏠살같이 달려 나가곤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운동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등 각자 저마다의 다른 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역시 이러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차이를 가진 사람들은 '협력'을 통해 서로를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 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춤을 잘 출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편견'의 눈이 아닌 '협력'의 눈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 선생님, 계속 남아주세요

고민 많은 20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문득 '지금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도 만족할법한 보람찬 복무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둘 사회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친구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를 회의감과 불안감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다들 나를 앞서 가는 듯한, 혼자만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건, 바로 이용자분들의 어머님들이셨습니다. 학부모간담회 행사 도중, 한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집해제 후에도 계속 계시면 안 될까요? 매달 캠프도 같이 가시고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요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경써주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다들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요.” 다른 어머님께서도 “우리 애가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집에 오면 맨날 선생님이랑 오늘은 같이 뭐 했다고 자랑하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 감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소중한 자식분들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사회복지요원로서는 정말 최고의 찬사를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 저는 영원한 사회복지요원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에게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2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기이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회생활을 미리 겪어보는 하나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1월, 저는 사회복지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하게 됩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정이 든 이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무를 끝마친 후에도, 저는 자주 센터를 방문해 저의 새로운 가족이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영원한 복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요원 정홍규입니다.



쓸모없지 않습니다.

김 성 현 | 속초시니어클럽

## 사회복무요원의 길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는 특히 10~20대 남성들에게 큰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술안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떠오르는 신기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시절,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이 단어를 듣거나 군인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친구들과 “우리가 크면 통일이 될 거니까 군대 갈 필요 없겠지?”라며 먼 후일을 상상하고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이 믿겨름이 되어 어느덧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지로 행동을 하며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난 만큼 지켜야 할 의무와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날의 상상과는 달리 결국 ‘군대’라는 단어도 지켜야 할 의무로 천천히 묵직하게 다가왔고 친구

2명과 함께 날짜를 정해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긴 시간동안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돌아갈 때에는 등급판정 결과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에겐 1급이 저에겐 4급이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1급이 적힌 종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제게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친구들의 말대로 다행인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현역으로 훈련받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내 몸 상태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단어 대신 바뀌기 전 명칭인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은 매일매일 휴대폰이나 만진다. 정말 하는 것 없고 군 생활 날로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모르던 저 또한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지가 조금 안 좋으면 어쩌나며 군복무를 쉽게 해결하게 되었으니 잘 된 것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로 저울질을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곳에서 마주한 겨울

저의 첫 근무지는 같은 아파트 옆 동의 1층에 있는 ‘천사나래노인공동생활가정(이하 천사나래)’이라는 긴 이름의 노인생활시설이었습니다. 첫 근무지라는 말에서 눈치를 채셨을 지도 모르지만 저의 현재 근무지는 이곳과 다른 곳입니다. 비록 긴 기간 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곳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근무지에 앞서 첫 근무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12월 본인선택으로 근무지를 선택할 때, 작년탈락자 우선순위, 나이 우선에 그 이외의 나머지는 랜덤이라고 하여 첫 지원으로는 사실상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어디든 일단은 넣어보자 하고 근무지 목록을 훑어보다가 주소가 저희 집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는 곳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이름인가 싶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그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붙어버렸고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근무 첫 날, 한 달간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 힘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회복무요원이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까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천사나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던 곳이 아닌 아파트 1층에 있는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아파트 1층에는 아동시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니 이러한 시설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주변에도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나래에 들어가서 본 첫 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요양시설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제가 보며 자란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와는 어딘가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입문은 차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잠금이 되어 있었고, 어르신 두 분은 문 앞에서 앉은 채로 손으로 바닥을 끌며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안 쪽 방에 계신 어르신들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처음 보게 된 아파서 미동도 없이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겁이 났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봄인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비교되게 이 안은 아직 차디 찬 겨울이었습니다. 총 9명의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모두 어딘가 아픈 것 같아 보였고 활기라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사

회복무요원인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2년을 보내야 할지 생각할 수 없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담당 선생님이 제게 부탁하신 아침 청소 도와주는 것, 점심에 휠체어 끌어주는 것, 매주 짜여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 도와주는 것만 매일매일 그곳의 어르신들과 비슷하게 반복하며 생활하였고 그 영향인지 저 또한 점차 무기력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제 무기력한 모습은 집에 가서도 유지되었고 살면서 처음 보이는 그런 제 모습에 부모님까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밖에서 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셨을 텐데 집에 와서는 제 걱정을 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편히 있을 수 있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까지 겨우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국 제가 봄이 되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 굳이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며 제가 알아낸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몰랐을 뿐이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 노인 시설은 물론 말고도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지만 주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관심을 가지고 복지 분야를 목표로 하는 젊은 친구들은 비교적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시설에 젊은 층의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명칭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무원인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저는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넓은 상에 노란 콩, 붉은 콩, 검은 콩을 다 쏟아서 섞은 뒤 종류에 맞게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 3~4명이 둘러 앉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제가 끼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별 기대 없이 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르신 한 분이 “너도 같이 하는 거야? 허허”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어르신들의 입 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한 분이 웃으시니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웃으시며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매일 매일 아이클레이, 고리 던지기, 색칠 공부, 미니 볼링 등을 같이 하며 웃음꽃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르신만을 찍던 사진에는 제가 함께 하게 되었고, 벽면 한 구석은 제가 그린 그림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퍼즐을 권하며 함께 맞추자고 하시던 ○○어르신, 제일 잘 그려진 그림이라며 저에게 선물하신 ○○어르신이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을 즈음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머지않아 근무지 사정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어르신들과 힘들게 가까워진 만큼 아쉬움이 컸지만 어르신들에게도 제게도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곳에도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힘차게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이기에

현재 저의 근무지는 속초시니어클럽입니다. 이름의 ‘시니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곳 또한 노인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다만 첫 근무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시니어클럽은 특이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이었고, 일자리 기관이다 보니 주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낮아서 젊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근무지에서는 평균연령이 무려 90세에 가까웠고 70세 어르신은 우스갯소리로 ‘아가(아기)’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였으니 이곳에서도 똑같이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선생님들은 저의 부모님세대이지만 어르신들은 선생님들의 부모님세대와 비슷하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을 모두 누군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저 말고도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더 있는데, 신기하게도 훈련소 동기인 형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해 왔던 형은 제게 시니어클럽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같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 하나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고, 그 일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저의 업무는 주로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은 관리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도 함께 바빠지시곤 합니다. 바빠지는

기간이 되면 사회복지무원인 저희들도 설 새 없이 바빠지지만 “정말 수고했어” 또는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행사, 일일 찻집, 단체 김장 등 여러 일을 해보는 것도,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저에게 해주시는 아낌없는 조언을 듣는 것도 모두 사회복지무원 이기에 가능했고,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 쓸모없지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회복지무원이라는 대다수와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게 되어 결코 짧지 않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소중한 20대를 그리는 스케치북이 2년이나 찢겨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스케치북에 자신의 모습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찢어서 버리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그린 과정을 추억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는 복무하는 동안 사회복지무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고 내일의 저를 오늘의 저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쓸모없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무원인 저는 서툴지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그려나갑니다.



## 사회를 배우다. 나를 이해하다.

김민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지난 1년 8개월의 복무 기간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사회를 향한 첫발걸음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문서를 세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박스에 담긴 수많은 문서를 세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창문을 바라보며 세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문서를 읽어 보니 난생처음 접하는 공사 상품에 대한 리플릿, 상품 안내문, 여러 통계자료 등과 같은 문서였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한두 장 읽다 보니 어느새 세단은 끝이 나있었고 그 결과 공사

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보증자리론, 주택연금 등의 상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처음 접하게 되는 업무가 왜 주로 복사와 같은 단순 업무인지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찮아 보여도 작은 일부터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는 2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앞으로 공사에서의 복무가 제게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부딪치는 법을 배우다.

12월이 되어 저는 공사 직원의 보증자리론 서류 업무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서부지사는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많은 대출 신청으로 인해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사로 접수되는 서류의 양만 하루 평균 약 100건에 달했고, 이는 3명의 사회복지요원 선임과 하루 종일 부지런히 함께 해도 완수하기 벅찬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명의 선임이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저와 사회복지요원 선임 1명 총 두 명에서 서류 접수 업무를 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업무의 숙달 정도로나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회복지요원 선임 1명과 저는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정신없이 바쁘게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서류 순서 정리를 했고 퇴근시간을 10분 앞두고 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접수량의 절반만 처리했다면 남은 복무기간동안 저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소중한 꿈과 함께 대출 심사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복지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그날 가슴 속에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딪쳐보는 것이 옳은 복무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아닐지라도 제가 처리하는 업무 하나 하나가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2월, 복무를 시작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저는 사회로 나와 부딪치며 시도해보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 거만한 나를 발견하다.

다사다난했던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는 전세자금보증 홍보지원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따라 옆에서 단순하고 보조적인 지원을 하면 되는 업무였습니다. 공사 보증상품 중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신용회복 지원자와 같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품이 상당수 존재했고, 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 상기의 보증상품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고객이 필요하면 찾아올 텐데 굳이 공사에서 출장을 나가 상품 홍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출장을 나간 3월의 어느 날, 그런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한 분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하시면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소득의 대부분을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 하였고, 캐피탈사 직원의 쉽고 간편하게 임차보증금을 빌려준다는 말에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 과중한 채무상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상담 내용을 유심히 듣고 있던 저는 그분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던 짧은 제 생각에 큰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제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금융 사각지대에서는 금융정보 부재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의 높은 이자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등의 위험성을 모르고 마치 체크카드처럼 쓰시는 분부터 캐피탈사의 전화 대출을 습관적으로 이용하시는 분까지 생각보다 금융비용 및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대해 무관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제 생각은 그저 현실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의 거만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가 마주했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삶과 연관되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그날 이후 자신의 관점에만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생각의 폭을 한정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날에 저는 금융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직접 사각지대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공사와 사회복지요원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 금융의 따뜻함을 배우다.

추위가 풀리고 서서히 기온이 높아져가면서 저는 출장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택연금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자리인 주택연금

출장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김포시의 한 경로당에 출장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신도림에 위치한 지사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달하는 위치인지라 출장시간이 꽤 소요되는 위치였는데, 해당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은 막상 주택연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의 설명회가 끝나고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시던 어르신들께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와서 설명까지 했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며 미리 준비하신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관심 없는 일이었을지라도 그걸 설명했던 사람의 정성과 수고에 고마움을 표현해주셨던 어르신들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제게 부족했던 따뜻함, 그리고 고마움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땀으로 정을 나눈다.

보금자리론 업무와 주택연금 업무, 보증 업무까지 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두루두루 익혀가면서 지사에서는 아예 ‘민식 주임’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 지사에서 실시하는 드림하우스라는 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림하우스 활동은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고객 중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수리해드리는 활동이었습니다. 2017년 8월 무더운 여름,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전문 건축업자께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집 안의 가구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무더위로 쉽게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저와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 저는 같이 일했던 분들과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멋진

게 리모델링된 어르신들의 단독주택을 보며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동반 성장하는 법을 익히다.

워낙 바쁜 지사 업무로 인해 저는 업무 구분 없이 청년인턴들과 자주 협업을 하는 편이었고, 청년인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상반기에 근무했던 인턴들은 떠나고 하반기 청년인턴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며칠간의 공백기로 인해 효과적인 업무의 인수인계가 어려웠지만 저는 상반기 인턴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차질 없이 하반기 인턴들에게 업무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과 함께 업무를 해나가며 사람과 조직 모두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움을 익혔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며 동반 성장하는 것 또한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며 깨달은 소중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

지난 1년 8개월의 시간동안 사회복지부는 부족한 제게 사회 그리고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무 이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업,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저는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주최하는 은퇴금융아카데미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 지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못했을 인생의 값진 경험과 저를 돌아보는 시간 이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저를 대한민국의 당당하고 멋진 청년으로 만들어준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무를 하며 항상 가슴속에 지닌 사회복지요원 현장 중 한 문장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구절을 가슴에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는 하나의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요원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시간은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의 가르침을 주신 복무담당자 김승섭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항상 격려해주신 강희수 지사장님과 이성조 실장님, 이지연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직원들께서 손수 보여주셨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가르침 하나하나가 제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값진 기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꿈을 향해 달리는 기관사

최재원 |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사회복무요원로서의 시작

경영학과에서 재학 중이던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인 24살에 군 복무를 대신하여 사회복무를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후 2년간 근무하게 될 복무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복무지 목록을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지하철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였다. 어릴 적부터 기차와 전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차와 전철을 좋아했던 나는 자라면서도 이상하게 기차나 전철을 탈 때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기차와 전철은 내게 특별한 설렘을 주었다. 그런 이유로 지하철역을 근무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하철역은 근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근무지도 고민해 보았다. 하지만 결국 나의 선택은 지하철역 이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보통의 군 생활 보다 일이 편한 편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 하는 복무를 편한 것만 찾으며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복무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1지망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지원했고 그곳에 선발되었다.

근무 첫날, 서비스 안전 센터에 가서 담당자 분과 면담을 하고 내가 근무하게 될 지하철역을 배정 받았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내가 근무하게 될 지하철역은 지하철역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바쁘다고 알려진 환승역이자 종점역인 ‘부평구청역’이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 왔다. 일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기에 그 부분은 걱정되지 않았지만, ‘과연 내가 그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걱정의 반대편에는 앞으로 부평구청역에서 내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전철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은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이 설렘보다 약간 큰 상태였다. 그렇게 걱정과 설렘을 안고 나의 근무지로 첫 출근을 했다. 그때까지 ‘부평구청역’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근무지에 도착해보니 그 곳의 역무원분들과 사회복지요원 선임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그분들은 나를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 주셨고 덕분에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나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하철역의 고객들을 만나는 것은 달랐다. 환승역이다 보니 수많은 유동인구가 있었고 길을 물어보는 고객도 정말 많았다. 근무 초기에는 나도 그 지역의 주변지리가 낯설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이 몇 번 있다 보니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하려고만 해도 겁이 났었다. 고객들을 대응하는

것에서는 내가 근무 전 했던 걱정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매일 지도를 보며 주변지리를 익히고, 근처의 주요건물들을 외웠다. 노력을 하니 안 되는 것은 없었다. 이후 나는 고객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었고 행여나 내가 모르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검색을 해서 쉬운 길을 찾아 설명해드리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더 이상 고객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고객을 만난다는 것이 매일 내게 설렘으로 다가왔다.

## 따뜻한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올해 1월, 하루하루 설렘을 안고 근무하던 나에게 인상 깊은 사건이 일어났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근무를 서고 있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한 어르신을 발견했다. 어르신께서는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복만 입고 추위에 떨고 계셨다. 나는 그런 어르신이 걱정 되어 서둘러 어르신께 다가가 목적지를 여쭙봤지만 어르신의 대답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하는 상황이었고, 나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고민하던 중 어르신께서 입고 계신 환자복에 적힌 병원 이름을 발견했다. 지혜를 발휘해서 병원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다행히 병원을 통해 어르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어르신은 그날 새벽에 혼자서 병원을 나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실종으로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한다. 내가 그 실종된 어르신을 찾은 것이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분이 우리 역에 와서 그 어르신을 만났다. 경찰관께서는 나에게 정말 큰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나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 곧이어 어르신의 가족들도 도착했고 그 어르신은 다시 가족들과 무사히 재회 할 수 있었다. 어르신의 가족들은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은 나에게 큰 감사함을 표현하셨고 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추웠지만, 나의 마음의 계절은 따뜻한 봄과 같았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지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맡은 임무 자체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에 대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사회복지무원이라고 하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온다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비아냥거림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현역들의 군 생활만큼이나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며 현역보다 몸은 편하고 자유로울진 몰라도 내 마음가짐만큼은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일이 있는 이후로 내가 맡고 있는 임무에 대한 만족감과 사명감이 더욱 커져, 이제는 누가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비아냥거리려도 그 비아냥거림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 보다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원은 현역들 보다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무원도 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원에

대한 내 인식 자체도 바뀌었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기 위해 더 헌신적인 태도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새로운 도전

내가 근무하는 곳이 종점역이다보니 운행을 마치고 나오는 기관사님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난다. 나는 기관사님들을 만날 때 마다 전철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고 그때마다 기관사님께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그러다 보니 기관사님들과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하루는 기관사님께서 운행을 시작하기 전 나와 함께 입고 되어있는 전동차에 들어가서 기관사실을 보여주셨다. 내가 직접 기관사실에 들어가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기관사님께서 시동을 켜고, 전동차는 출발역을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전동차 엔진의 울림이 내 마음까지 전해졌고, 그 울림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기관사라는 어릴 적 꿈이 넘쳐 나오도록 만들었다. 전동차가 출발역까지 들어오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꿈이 넘쳐 나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전동차에서 내리며 기관사님께 “저도 멋진 기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말했고 기관사님께서도 나의 꿈을 응원해주셨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대학을 나와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년 만에 수능 교재를 다시 펼쳤다. 그 긴 시간동안 수능 제도는 많이 바뀌었고 오랜만에 수능공부를 하려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꿈이 더 강했기에 나는 더 독하게 공부를 했다. 퇴근하면 바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문이 닫히는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근무지 휴무 날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다. 근무지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단어를 암기하며

자투리 시간마저도 수능공부에 전념했다. 수능 전 날 직원들과 사회복지무원 동료들의 응원을 받고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다. 채점 결과 내가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철도대학에 합격하기에 충분한 점수였다. 두 달 뒤,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순간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다. 나의 다음 목표는 철도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교통공사에 기관사로 들어오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도전의 시작은 사회복지무를 처음 시작할 때 서울교통공사를 희망 근무지 1지망으로 썼던 것이다. 편한 근무지를 찾지 않고 정말 내가 뜻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때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난 잊고 지냈던 기관사라는 꿈을 찾았고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근무지가 있다면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고,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복무하게 될 미래의 사회복지무원들이 사회복지무원의 이러한 장점을 알게 되고 활용한다면 사회복지무를 하는 시간이 단지 군 생활을 대신하는 것이고, 소중한 청춘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운이 좋게도 사회복지무원의 이러한 장점을 알지 못했음에도 내게 맞는 근무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내 꿈을 향해 달려간다.



In my self :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권 근 우 |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요!, 복무지 이전하고 싶어요!”라는 소리에 담당하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행복이 보인다.

2016년 12월 중순, ‘지잉~’, 사회복지무원 소집한다는 문자가 왔다. “아 제발 아무 곳이나 붙어라” 난 22살 사회복지무원 지망생, 편한 복무지 숙된말로 '꿀무지' 지망생이자 재수생이다. 작년에 그런 복무지만 넣어서 떨어졌던 아픈 생각에 경쟁률이 낮은 곳인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지원했다. 결과는 성공.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케어해주는 곳이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에 와서 오후 6시까지 공부와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문화 체험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곳이다. 내 전공이 공대쪽이고, 사회복지나 아동교육과는 아무런 관련도, 경험도 없던 나는 걱정을 좀 했지만, 사회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사회복지원은 하는 일 거의 없어 편하게 생각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서 “대충 복무하고 공부나 하면서 남은 2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라는 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첫 근무할 때 알았다. 왜 경쟁률이 낮은지 알 거 같았다.

특히 아이들과 친해지고 지도하는 게 너무 버거웠다. 내가 알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다. 센터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은 “아저씨 어디 아파서 온 거죠?(비웃으며)”이 말 한 마디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선생님이던 친구들이던 상관없이 욕설과 버릇없는 행동 등 이런 일 하나, 하나가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됐고 아이들 케어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고문으로 느껴졌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선 ‘내가 욕까지 참으면서 애들을 내가 왜 지도 해야 돼?, 게다가 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나가질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박○○ 복지사 선생님과 얘기를 했다. “선생님 업무 분담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이들 지도를 못 하겠어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근우 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동복지센터에 왔으면 당연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 아니야?, 복지 쪽은 업무 분담이 나뉘어져 있는데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쁘면 서로 돕고 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확김에 “선생님 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아이들이 정말 싫어요!, 왜 제가 돌봐야 되죠?, 선생님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 복무지 이전 할래요!”라고 소리쳤다.

담당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혔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 상태로 조용히 방을 나가셨다. 그 이후에 선임한테 박○○ 선생님이 많이 우셨다고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후회가 됐다. 너무 죄송했다. “내가 이렇게 까지 하면서 선을 긋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다짐을 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복무해서 사회에 나올 때 정말 멋진 사람이 되리라...!”, 다시 박○○ 선생님한테

가서 정말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도 기분 좋게 사과를 받아주셨다. “그래 근우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 이후 나는 일단은 ‘왜요?’가 아니라 시키는 일은 무조건 했다.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서류정리, 설거지, 장보기 등등 모든 일을 즐겁게 했다. ‘하기 싫어’가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 웃으면서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고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즉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애들이 정말 미안해

몇 개월 후 모든 업무가 손에 익숙해 졌지만 아직도 난 아이들 지도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욕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큰 소리를 내면서 혼냈다. 아이들에게 나는 회유나 따뜻함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초등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동 개인 가정 환경에 대해 일부분을 들었다. 센터 다니는 아이들 가정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이었다. 그래서 지역아동복지 센터가 이런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지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센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어찌면 아이들이 그런 결핍들을 숨기려고 욕설과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때까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너무 미안했다. 아이들을 소리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 말도 걸어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아이들 한명, 한명 성격이 어떤지 파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말을 걸어보려 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이 프로그램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 때, 욕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울 때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럴 때 마다 선임한테 그리고 선생님께 여쭙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차 아이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졌고, 아이들이 “근우 쌤이 싫어요!”가 아니라 “근우 쌤! 여기서 오래 있어야 돼요!”라고 말했다. 천방지축 같았던 아이들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귀엽고 해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 책임감은 사람을 바로 서게 만든다.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은 ‘모르면 물어봐라’, 그리고 ‘일이 나한테 맡겨졌으면 무조건 완수하려고 노력해라’였다. 나는 복무를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버거운 단어인지 몰랐다.

올 해 1월 초에 선임이 소집해제를 하고 센터 선생님 두 분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센터 구조를 말하자면 1층과 4층으로 나뉘져 있는데 1층은 회계와 서류업무를 주로 하고 4층은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주로 복무하고 있는 4층에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록 내가 1년차이지만 4층에서는 경험이 제일 많으니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명이 해야 할 업무량을 혼자서 하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내가 센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그리고 나는 성격이 매우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한다. 그래서 센터에 실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예전에는 보통 선임이 센터 소개를 하고 어떻게 실습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데 선임이 소집

해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선임이고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록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낮간지러웠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누구한테나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성격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올해 2월 초에 센터장님이 금융회사에서 후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단'이라는 아이들 중국 문화체험프로젝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셔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담당자가 돼서 지도해보는 건 처음이었다. 설레기도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중학생 아이들을 불러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의논하면서 고군분투를 했다. 사실 초반에는 정말 아이들이 생각해 가져온 것들이 엉망진창이었다. 중국에 관한 자료 정리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인터넷에 찾은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온 것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냥 시키면 될 줄 알고 방치해 버렸다. 총 책임자가 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은 시간은 3일이었다. 이 때 정말 막막했다.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돼버렸다.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역할분담을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직접 아이들이랑 부딪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고 여러 번 고치는 일을 반복했다, 솔직히 즐거웠다. 떨어져도 후회가 없었다. 아이들과 밤 11시까지 센터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자가 돼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결과보다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공들였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중했다.

이처럼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 무겁지만 견뎌내면 한 층 더 성숙된 사람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 “근우 쌤! 연차 쓰지 마요!, 쌤 없으면 4층이 안 돌아가!”

2018년 3월 초, 이제는 아이들과 격 없이 지낼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다. 솔직히 이제는 아이들 눈빛만 봐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완전히 파악이 됐다.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센터 업무에 체화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3월 초에 새로운 복지사 선생님이 오셨다. 그 선생님은 초반에는 나한테 많이 의지를 했다. 센터장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근우 쌤한테 물어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근우 쌤, 보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근우 쌤 보통 애들 간식은 어떻게 했어?”, “근우 쌤 서류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등등 많이 물어보셨다. 그리고 후임도 새로 들어와서 인수인계도 하고 또 실습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소개하고 애들 케어 하느라 정신이 없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 만큼 센터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서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연차를 쓸 때 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근우 쌤, 연차 쓰지 마, 쌤 없으면 센터가 안 돌아가...”였다. 너무 나도 기뻐다, 물론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무했던 모든 것이 보상이 된 느낌이 들었다.

## In my self,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복무한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센터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혼나기도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허나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생각하기 나름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사회복지무원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 보세요, 정말로 시간이 아까운지, 아니면 복무하기 싫어서 시간 핑계를 대는 건지. 모든 일에는 배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찮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전등 하나도 제대로 갈지 못했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갈아보고 마트 가서 장을 보면서 요즘 물가가 어떤지도 잘 알게 되었고 화장실 세면대가 고장 났을 때 직접 고쳐봤습니다. 또 큰 사회에 숨겨진 지역사회에 있는 고층, 센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고 제 생각과 가치관도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때때로 여기에 있으면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사실 조바심도 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값진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사회에 나가면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 될 거다”라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해결책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복지무원 분들 힘내십시오!



##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복무요원

윤 준 혁 | 의왕시청

속 시원히 하고 싶은 말 모두 내뱉으며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 혼자 마음속에 꼭 누르고 있는 답답함, 결국 고충이 되어 남는다. 경문왕 설화에서 복두장이 대나무 숲에 "당나귀 귀"라고 외쳤을 때 느꼈을 카타르시스와 그 안도감. 복무 중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공감 받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렵다. 통계에 비추어볼 때, 다섯여 명의 친구가 모인다면 사회복무요원은 그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주위 친구들에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결국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우리 이야기는 가까이 있는 요원과 담당자가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다.

동료들과 소통하고, 담당자와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복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내 직무다. 나는 그들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른 아침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켜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일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가벼운 일은 아니다. 달력을 새로

넘길 때 빨간 날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닐까. “휴”

아침 출근 버스 안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다양한 사연을 이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표정으로 앉아있다. 나 역시 무덤덤한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무원 대표를 하며 나를 잘 따라주는 동료 사회복지무원들과 과분한 인정과 사랑을 주신 주무관님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나무 숲

대표로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업무는 동료들의 고충상담이다. 다양한 근무지에서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들은 그만큼 갖가지 고충들을 가지고 있다. 불편한 몸을 숨긴 채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일도 있고, 하루에 천여 건의 어르신 택배 처리를 돕느라 어깨가 상하기도 하며, 복지관 급식시설에서 수백 건의 식판을 설거지하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 요원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도리어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서는 외로운 것이 고충인 요원도 있다. 본인의 심신 건강에 무리가 있다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렵게 복무를 하는 요원들이라면 사적인 고민 역시 마음속에 어지럽다.

스물여덟의 끝자락에 복무를 시작해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서른을 맞은 나는 우리 시 일반행정지원 분야의 요원 중에 안타깝게도 가장 나이가 많다. 대부분의 주변 요원들과 예닐곱 살 차이가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목대장이 되었다. 사회복지무원이 담당자에게 자신의 고충과 불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다보니 같은 사회복지무원 입장에 있는 내게 제각기 자신들의 고충을 잘 털어놓곤 한다.

많은 경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 보다 그저 잘 듣고 공감해주는 것만

으로도 상당한 위안이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커피한잔 건네며 잠시 쉬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면 대부분 스스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복귀해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는 편이다.

우리 시에 배정받은 사회복지무원들이 첫 출근을 하면 대부분 나와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된다. 신상명세서 작성을 돕고 복무규정을 숙지하도록 짧은 교육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소를 갓 수료해 마음이 아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 역시도 잘 알기에 가능하면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곤 한다. 이렇게 첫 만남 때 안면을 튼 요원들은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항상 훈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일복무상황부나 병가서류를 상습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요원이나, 간혹 자신의 근무지에 대해 터무니 없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해결을 요구하는 요원도 있다. 국외여행이나 겸직허가 등 규정이나 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고객센터 상담원이라도 되는 양 무례한 말투로 이야기 하는 요원도 있다. 누구보다 고충과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에 많은 부분 수용하려 노력하지만,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나도 내심 화날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어디에 외쳐야 하나?

###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대표를 맡은 지 며칠 안 되어 새로 장애인복지관으로 배정된 요원이 찾아왔다. 장애인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이었다. 본인에게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이러다가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본인도 모르게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근무지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굉장히 단호하고 공격적인 목소리였다.

급기야 면담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담당 주무관님과 나는 복무초반의 적응단계에서의 마찰로 판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적응을 도와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호전적인 성향의 남학생들은 사무적인 대화보다 비격식적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 소통이 더 잘된다고 생각했다. 나도 옥상으로 따라 나가 대화를 나눠봤다. 아직 복무초반이고 사회복지분야가 힘들 수 있음을 공감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해보자고 독려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하라고 이야기 했다.

“준혁이형 좀 바꿔주세요.”

그 후 꽤 자주 시청으로 전화해 나를 찾았는데, 아마도 복무하며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줄었고, 날카로운 말투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매월 복무교육 때 만나면 밝게 인사하곤 한다. 지금은 시설 직원이나 이용자들과도 잘 어울려 행사에 참여하며 얼마 남지 않은 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동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명의 요원이 배치된 근무지에서는 종종 사회복지무원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곤 한다. 업무에 무책임하거나, 근태가 나쁜 요원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그 몫까지 채우느라 많이 힘들다. 하루는 동료 문제로 면담이 있었던 사회복지무원이 있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요즘엔 좀 어때요?”

“이젠 주변 신경 안 쓰고, 틈나는 대로 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공부하는지 물어봐도 되요?”

“사실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복무를 시작하기 전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수능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 사회복지요원으로 왔다는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수학과외 경험을 십분 활용해 조언을 할 수 있었고, 동료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동료와의 갈등 양상을 오히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건전한 방식으로 회피해보자고 결론 내렸다.

“틈틈이 공부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 “형, 밥값이 없는데 오늘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복무하던 동료 요원이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요원들과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면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고충은 금전적인 문제다. 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점심만 먹으며 복무할 수는 없으니 결국 복무 중 의식주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동안은 부모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정 사정이 좋지 않다든지 이미 결혼한 요원의 경우 생계가 매우 불안해진다. 조손가정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는 요원은 단순 생계 뿐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도 문제다.

부모님께 크게 지원받지 않고 복무중인 요원들은 대부분 주머니 사정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게 동료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생계유지 사유로 겸직허가가 가능하지만 하루 종일 복무하고 퇴근과 동시에 일자리에 출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금전적 문제는 돕고 싶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 올해부터 감사 히도 병사와 사회복지요원 급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후배들은 좀 더 넉넉히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한 요원이 소집해제 하던 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대표 업무가 힘들지는 않냐’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내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했다. 평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는 아닌데, 열심히 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이 닿았던 걸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알아주고 표현해 주니 내가 더 고마웠다.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병역의무라는 것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 고충은 열심히 복무할 동기를 찾기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각 근무지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보조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애국심으로 2년간 버티는 것도 녹록치 않다.

나 역시 생소한 마음으로 시청에 첫 출근을 하던 날이 있었다. 복무를 시작하기 넉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란스러운 가정사 속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색할 수도 내색할 곳도 없었다. 다들 그렇듯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였다.

간단한 교육과 면담을 거쳐 안전총괄과로 배치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로 배치된다는 것은 모범적으로 복무하라는 기대와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음을 의미했다.

그렇지만 막상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마땅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각 주무관님들이 저마다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이 사회복지요원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주변인이 되었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관행상 나는 직원이라고 불리는 범주 밖에 있었으며, 인원파악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직원안내도에도 내 얼굴은 들어가지 않으며, 명패도 없었고, 식사도 따로 했다. 가장 어리고 수동적이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짧지만 20대 내내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내게 시키는 대로 하면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위치 그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 데는 한혜진 주무관님과 전천성 팀장님의 신뢰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싱싱한 바나나 향 가득한 손수 만든 과일주스를 한 컵 따라주신 한 주무관님. 주무관님께서는 내 자리에 명패를 놓아주셨고, 대표로서 그리고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주셨다.

“준혁이 내가 뽑았어요.”

내가 배치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른 주무관님들께서 나를 칭찬하실 때면 한 주무관님께서 하시던 말씀이다. 나의 대나무 숲은 한 주무관님이다. 업무적인 고충과 가정적인 고민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다. 기꺼이 들어주시지만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함께하는 짝꿍이 될 것 같은데 늘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준비하는 공부에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시청 사회복지요원 총괄 주무관으로서 요원들의 문제를 항상 ‘내 아들이라嘛’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내 의견도 꼬박꼬박 들어주셨고, 내가 다른 요원의 고충을 전달하면 반드시 해결방안을 고심해 처리해주셨다. 이번에 의왕 시청이 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이런 주무관님과 팀장님의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요원들이 식사를 잘 했는지

꼭 챙겨주시는 정일수 과장님의 진심어린 관심이 한데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다양한 고충을 가진 요원들이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복무에 힘을 얻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내가 아무리 대표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해도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리고 챙겨줄 수 있는 세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챙겨준다면 요원들도 금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자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각자 맡은바 자신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함께 더 큰 당당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험을 안고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나를 성장시켜준 너의 웃음

김 현 준 | 원주청원학교

### 원주 청원학교 소개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야했다. 인대수술과 천족(병명)으로 인해 사회복지봉사가 되었고, 근무지를 정해야 했다. 당시에는 가고 싶은 곳 중에 세 곳을 선택하여 추천을 통해 가는 방식이었고, 나는 원주시청과 횡성 큰 빛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의 근무지인 원주 청원학교를 선택하였다. 보육자격증이 있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근무지는 원주 청원학교가 되었다. 나는 사회복지봉사를 위해서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원학교는 원주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특수학교였으며,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닐 수 있었다. 원주 청원학교에 와서 보니 학교는 장애인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수업과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미술치료와 원예치료를 지원해주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바리스타 수업과 더불어 도예와 제과·제빵 수업, 석고방향제 등을 만드는 공예수업도 지원해 주고 있었다. 학생들이 만든 물품중에 어떤 것들은 학교행사 등에서 팔리기도 하였다.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수업 때는 육상부, 역도부, 댄스부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정규반에 뽑힌 후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수업을 받았으며, 스무 살 이상의 학생들 또한 사회적응 훈련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분기별로 장애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정일 경우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며 원주 청원학교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있었다. 학교 시설은 도서관을 더불어 아이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세차실과 바리스타실, 공예나 도예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있었으며, 쉬는 시간에 산책할 수 있는 정원과 체육관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용변 실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화장실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호스가 따로 구비되어 있었고 각 교실에는 양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세면대도 있었다. 근무지를 조사하며 청원학교는 사회적약자의 편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도와줄 있는 곳이라고 알게 되었고, 나 또한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미운정이 무섭다.

대학을 다니며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 실습을 장애인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나의 다짐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복무에 임했다. 하지만 자신감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고등부인 우리 받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학급이었고, 녹녹치 않았다.

학생 2명의 통학지도를 도와주어야 했고, 식사 때에는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해 식사보조를 해주어야 했으며 이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끌어야 했다. 나를 때리는 아이도 있었다. 가끔 “고의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냐?”며 핀잔을 받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힘이 들어 필요한 도움을 주지도 못 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자’ ‘어차피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상황 또한 바뀌지 않을 것’ 이라면 내가 바뀌어야만 했기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기로 생각했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재미있게 놀아주었다. 체육시간이 되면 애정결핍인 아이를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었고, 휠체어를 끌며 장난을 쳐 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했다. 밥을 잘 먹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나를 때리는 아이가 있어도 웃으며 받아주었다. 이렇게 내 마음과 행동이 바뀌자 아이들의 행동도 놀랍게 바뀌었다. 나를 봐도 인사를 하지 않았던 아이는 먼저 인사를 했고, 이동할 때 내가 먼저 웃어주었던 아이는 나중에는 먼저 웃어주었다. 나를 때리던 아이는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줄 때도 있었다. 처음 아이들을 고의로 해코지를 한다고 항의하시는 어머니의 전화도 없어졌다.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이면 고맙다며 학생 가방 안에 간식을 넣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먹기도 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학교를 재미있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학생이 자신과 잘 놀아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 어머니께 조그마한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고, 아이가 하교할 때 수고하신다며 가끔은 마실 것을 챙겨 주시기도 하였다.

내가 먼저 정을 들이니 아이들이 바뀌었다. 처음으로 해주던 칭찬은 어느새 진심이 되었고, 학생들은 비교할 수 없게 좋아졌다. 다음 학기에도 학생을 봐달라고 요청하시던 부모님도 계셨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덕분에 나는 학기가 끝날 때 학생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요원이 되었고, 선생님들 사이에선 열심히 일하는 복무요원이 되어 있었다.

## '나도 아파'

○○이는 나를 보며 씨익 하고 웃었다. 마치 '안녕 우리 잘 지내봐'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가까머리에 왜소한 체구, 큰 눈이 인상적인 ○○이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걷는 데 불편했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 했다. 용변처리조차 본인이 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였다. ○○이는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해맑게 웃었고,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왜 나한테 관심을 안줘? 라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밥을 먹을 때면 매운 것을 먹지 못 하는데도 매운 음식을 바라보며 '그건 뭐야?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 내가 매운 것을 주면 받아먹고는 화들짝 놀라며 물을 찾았다.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물을 마시면 살았다는 표정과 함께 다시 밥을 먹었다. ○○이는 내가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함박웃음을 지었다. 머리를 때릴 때 머리를 살짝 두드려 주면 '이건 무슨 놀이지? 라는 표정으로 자학을 멈추고는 했다.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를 보며 보란 듯 자학을 해 관심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가끔 안기기 위해 자학을 했다. 안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내 눈치를 보다 내가 애써 무시하면 나 보란 듯이 자학을 해 안기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함박웃음을 지어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표현을 주변사람들의 머리를 뜯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머리를 뜯었다. 밥을 먹이다 머리를 뜯기고, 놀아주다 머리를 뜯거나 가끔 기분이 격양 되면 안경을 벗겨버리거나 뺨을 때릴 때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나중에는 ○○이가 손만 뻗어도 흠칫하고 놀라며 '뭐?' '왜?' '뭐가 문젠데? 라고 혼잣말하며 ○○이의 눈치를 살피는 나를 보며 즐거워하는 ○○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를 간질으며 나름의 복수를 하고는 했다.

그래도 나는 ○○이를 미워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신뢰해주고 담임선생님보다 나를 좋아하며 안아달라고 장난을 치고,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고 내 머리를 뜯는 학생을, 나만 보면 반갑다고 함박웃음 짓는 이 학생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대신 나는 오늘도 내 머리를 뜯기며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소리친다. ‘나도 아파’

## 나를 참 좋아해주던 남학생

내가 보았던 많은 아이들 중 유독 생각나는 학생이 한 명 있다. 바로 ○○이다. ○○이라는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학급에 처음 들어 갔던 날이었다. 신변처리와 이동지원, 식사지원이 필요 없는 보기 드물게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이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반 친구들을 챙기는 그런 아이였다. 큰 키와 순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는 낯을 많이도 가렸다. 말을 할 때면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얘기를 해 몇 번이고 되 물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말을 시키지 않으면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소극적이고 행동도 느렸다. 그리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애정이었다. ○○이의 부모님은 맞벌이 가정이었고, 그만큼 관심을 쏟아주지 못 하였다. 일주일 내내 같은 웃을 입고, 비듬이 가득한 머리로 등교 할 때가 많았고, 나도 다른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이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못 했다. 지내면서 보니 처음 낯을 많이 가렸던 아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어쩌다 나와 눈이 맞으면 조용히 웃으며 좋아했고, 체육시간 등 이동 수업을 할 때나 현장학습을 갈 때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쩌다 먼저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이를 더 많이 보게 되었다.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 조용히

칭찬을 갈구했던 아이였기에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이를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했고, 간식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겨주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면 ○○이의 손을 먼저 잡아 주고 가끔 나에게 안기려 할 때면 밀어내지 않고 있는 힘껏 안아주었다. 내가 보던 아이가 있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정이 많이 고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정을 채워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이와 헤어져야 했을 때 아버님이 찾아오셨다. 아버님은 나를 보자마자 “○○이가 나를 만나고 조금이지만 전보다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힘들었던 나에게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은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학기가 끝나 다른 반을 맡게 되어 ○○이와 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소집 해제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참 많은 힘이 되고 있다.

###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지금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두고 있는 나는 지금까지 세 학급을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등부를 맡았다. 그래서인지 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정을 느낀다. 일학년 이던 학생들은 이제 이학년이 되었고, 나는 지금도 ○○이를 보살피며 근무를 하고 있다. 작년 겨울 처음 만났던 조그마했던 아이가 이제는 내 턱까지 키가 커서는 아직도 나를 보면 안아 달라고 두 팔을 벌린다. 밥을 처음 먹었을 때 질긴 음식을 주거나 과도한 양의 음식을 주다 뱉어 내게 하던 실수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처음 곧 잘 걷던 아이가 이제 다리가 굳어 잘 걷지는 못 하지만, 이제는 나만 보면 웃는 그 아이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사회복지업무가 나쁘지 않은, 좋았던 순간으로 내가 소집해제를 해도 오래오래 선명하게 기억될 것 같다.

애정결핍이었던 ○○이는 지금은 다른 반이 되어 예전처럼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나만 보면 천천히 다가와 먼저 손을 잡아주며 아는 척하는 ○○이를 보면 ‘그래도 이 아이에게 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던 시간이었다. 내가 보살피던 다른 학생들 또한 나를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다. 학생들을 처음 봤을 때 ‘잘 보살피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지’라고 생각했던 나는 내가 가르쳐 주는 것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우는 중이다. 학생들에게서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학생들을 통해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 원주 청원학교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예비 사회복지사인 나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할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보게 해주는 시간이자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이제 곧 소집해제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많은 것들이, 또 쌓아 올린 많은 추억이 언제까지고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다. 스물 넷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해 길 다면 긴 시간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힘이 들 때나 지칠 때 꺼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임에 감사하며 내가 소집해제를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학교에 와서 옛날 일들을 추억하며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또 다시 우리 반 학생들을 보살피러 간다.



##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것들

김민기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충성!”

훈련소를 나와 방긋 웃으며 들어선 할아버지 댁. 할아버지는 조금 편찮으셔서 침대에 누워계셨고,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 왔냐며 내 엉덩이를 토닥거리시며 반겨주셨다.

“훈련은 잘 받고? 열중쉬어… 뒤로 돌아… 제식도 하고?”

6·25 참전용사이신 할아버지가 물어왔다. 참전용사 모자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매일 청소하실 만큼, 자랑스러워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웃으셨다.

“그럼요. 제식훈련도 잘 받고, 사격도 했죠. 그리고 행군도 무사히 끝냈어요.”

밖에 나와서 뵈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좋아서인가 나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지 바로 깨닫지 못했다. 천천히 살펴보니 말씀하시는 도중에 할아버지는 연거푸 눈을 깜빡이시며 즐고 계셨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눈이 뿌옇고 목소리도 좋지 못하셨다. 내가 훈련소를 나와서 할아버지 댁을 들린 게 천만다행으로, 그 날 할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 입고 온 군복도 벗지 못하고, 베레모를 쓴 채 나는 온종일 울었다. 할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으신 지 6개월,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이미 온몸으로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을 우리 곁에 더 계시다가, 하늘의 별이 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자가 훈련소에서 나오는 걸 보기 위해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무사히 잘 나오도록 매일 기도하시며.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내가 복무하고 있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하러 다니셨던 노인복지관이다. 이따금 할아버지와 닮은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묵묵히 젖어 오기도 한다. 이곳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흔적을 조금씩 찾아 기억하고, 추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복무에 임하고 있다.

‘할아버지, 효도 못 했던 만큼 어르신들께 더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 이야기에 앞서

어느덧 근무한지 일 년 가까이. 시간은 언제나 나보다 한 걸음씩 더 빠르다. 나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 그중 가장 큰 배움은 아마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전과는 달리 작고 사소한 것들에 행복을 느끼며 전보다 자주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 집안의 첫째로서 뭔가 이뤄야한다는 부담감도 크고, 전부 포기 해버리고 싶었을 때 도피처로 삼은 병역의무가 날 바꿔준 것 같다. 덕분에 좋은 복무기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의 좋은 점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일 년,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우스운 얘깃거릴 수 있겠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 삶에서 나오는 지혜

우스운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난 정말 쉽게 포기해온 것이 많았다. 인간관계, 학업, 아르바이트까지 조금만 어긋나면 내 쪽에서 먼저 그만둬 버렸다. 그런 점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항상 합리화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감명 받았던 이야기가 있다.

할아버지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내가 한 어머니께, ‘어르신은 살면서 후회하는 일, 없으세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어머니는 덤덤한 표정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별 수 없지. 난 젊은 나이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고, 그 남편을 전쟁 때 잃었다. 지금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지만, 그 때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시킨 부모를 원망했고, 홀로 남기고 떠나 버린 남편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자식 일곱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 난 후회 없다. 후회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일을 해라.”

말씀을 하시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어머니. 어머니의 손을 보니, 그 손에는 세월이 가득했다.

짧게 닳아 없어진 엄지손톱, 손가락 마디마디 튀어나온 굳은살. 나는 그만 울컥해서, 속으로 눈물을 게워내며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나온 것들에 너무 얽매어 있지 않았었다. 그동안 이런 저런 핑계들로, 번지르르한 말들로 합리화 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았다. 그 이후로 공부를 다시 손에 잡고 지금도 놓지 않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시험에 합격하고, 토익에서 꽤나 훌륭한 성적을 받았다. 남부끄럽지 않게 큰 사람이 되겠다는 손자의 말을 할아버지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나는 꼭 큰 사람이 될 테니.

## 배움에는 정말로 때가 없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책을 가까이하셨다. 매일 한자를 외우셨고, 옥편 표지가 닳아서 다른 종으로 덧댔 때까지 보셨다. 중국어 테이프를 켜놓고 혼자 공부할, 또 영어 알파벳부터 기초회화까지. 내 키가 몽당연필만 할 때부터 할아버지의 공부하는 뒷모습을 참 많이 봤다. 그래서인지 수험생 시절에 공부하다 힘이 들 때면 할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그 크고 넓은 등을 가진 할아버지가 공부하러 다니셨던 복지관에, 나는 매일 출근한다. 복지관 2층에는 어르신들이 나와 공부하는 교실들이 많다. 배움터, 문화방, 정보화 교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공부하셨을 테지.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고 있다. 나름 인기 강사로 수강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세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컴퓨터를 처음 켜는 법, 마우스를 움직이는 법, 인터넷에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검색하는 방법까지. 어르신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매주 두 번 꼬박꼬박 나오셔서 메모지에 꼬불꼬불 글씨로 받아 적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드릴 순 없어도, 반복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주 복습하고, 월말에 시험도 보고, 퀴즈를 풀며 지루하지 않게 애교도 부리고 사탕도 나눠드린다. 어르신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이라며 즐거워하신다. 만점은 아니어도, 반절만 맞아도, 아니 반절도 못 맞아도, 하나만 알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하시다는 말씀을 하신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들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복무를 끝마쳤을 때를 위해 수업자료를 PPT로 만들어 저장해두고 있다. 누가 봐도 이 배움의 열정이 뜨거운 어르신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얼마 전에 한 아버님이 자기 아들에게 처음으로 뽀뽀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몰라서 자식들과 손자들 앞에서 무안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게 참 감사하다며 차를 한 잔 사주셨다. 컴퓨터를 계기로 자식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손자도 아버님이 컴퓨터를 배우는 게 대단하다고 좋아했다고 하셨다. 그런 아버님께 나도 감사 인사를 했다. 한창 농사일로 바쁘실 텐데, 꼬박꼬박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업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갓으로 느낀다. 배움에는 정말로 때가 없다.

## 마음으로 품은 손자

맛별이를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다. 덕분에 깍뚝하게 예절을 배울 수 있었고, 재능이 많아 경로당 인기스타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어르신들을 대할 때 거리낌 없이 다가간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살갑게 인사를 하고 밝게 웃으며 손을 뚱뚱 잡아 이끌어드린다. 처음엔 당황하시는 어르신들도 물론 많지만, 이내 마음을 여신다.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이, 우리 손자 같은 아기가 참 예쁘다며 좋아하신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휴가를 쓰고 자릴 비우면 나를 찾아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도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오른다.

어느 날은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 한 분이 휘청거리며 들어오신 적이 있었다. 버스를 타러 가시다가 도저히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고 하셔서,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며 사무실에 급히 알리고 혈압 측정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 혈압이 상당히 높으셨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셔서 물을 한 잔 드리고, 손을 꼭 잡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전화로 아드님께 연락을

드리고, 구급차로 병원에 모시고 갈 때까지 짧은 찰나였지만 내가 빨리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했다. 지금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가끔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는 그런 사이가 됐다. 사탕을 사시면 주머니에 가득 담아, 내게 건네주시는 그런 사이.

그리고 또 한 번은 길에서 갑자기 넘어지시는 어르신을 보고 놀라 달려갔던 적이 있다. 혹여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어 헬레벌떡 가서 손을 잡고 몇 번을 되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머리 찢으신 곳은 없죠?”

연거푸 묻는 내 물음에 어르신은 괜찮은 듯 웃으며 답하셨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돌부리가 있는데 못 보고 걸려 넘어졌어. 늙으면 꼭 이렇게 바보짓을 하네. 고마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손을 잡아 부축해드리며 댁 앞까지 모셔다드렸다. 복지관 뒤에는 어르신들만 사시는 아파트가 있다. 홀로 남아 가족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노인 연금으로 한 달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다.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들 한 가지씩,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보듬어드릴 순 없지만, 비록 짧은 복무기간일지라도 정말 손자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더 살갑게 다가가 먼저 도와드리게 되고,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어르신들의 예쁨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진짜 손자가 될 순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품는 손자가 되어 드리고 싶다. 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모든 어르신의 막내 손자다.



## 500일간의 여행

✿ 나의 500일간의 복무 이야기 ✿

소 준 섭 | 창원천광학교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다.” 요즘 우리들은 문명의 이기 덕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닌다. 그러나 여행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기 때문에 분명 새롭고 즐겁겠으나, 그를 준비하는데 있어 힘을 써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旅行)을 여행(勵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힘을 써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행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에 대한 흥미로움과 여행의 즐거움, 그리고 유적지로부터 오는 경외감 등의 무엇. 여행(旅行)은 또 여행(餘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낸 500일의 날을 앞서 다른 뜻의 여행이라는 단어로 풀어보고자 한다.

### 나의 여행 준비기

나는 작년 2월 6일 처음 창원천광학교에 근무배치 되었다. 창원천광학교는 장애인학교다. 창원천광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 학생

지원이라는 임무를 가지는데, 각 반에 배치되어 그 반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곳이다. 처음 배정되었을 때 든 생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은 채 나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처음 배치를 받고 2월에는 새로 내가 학급에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이미 사회복지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반에 들어갔다. 2년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접해보는 시간이었다. 일종의 실습이었다. 반에 들어가 직접 천광학교에서 사회복지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접해보니 문화 충격이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의 신변처리를 도와준다거나, 쉴 새 없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또 자학하는 친구들까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점은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학생들의 행동이었다.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적응을 해갈지,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속에 2월을 보냈다. 별 탈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 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졌다. 나의 여행 준비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 첫 번째 여행 :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된 2017년도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다. 나는 천광학교 합주부에 지원을 갔다. 지원은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도우면서, 나도 합주부의 일원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합주부에는 내가 맡은 반 학생인 ○○가 있었다. ○○는 멜로디언을 연주 하는데 ○○는 학습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는 계이름 외우는 것에 애를 먹었다. 합주하는데 멜로디언은 멜로디를 진행하는 피아노 같은 역할이기에, 악보의 계이름을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는 연습 시간마다 계이름 외우는 것에 힘들어했다. 내가 맡은 반의 학생이기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었다. 그 찰나 나의 뇌리를 스친 두 가지 생각은 2016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무언가를 선사해 준 펜싱 선수 박상영의 “할 수 있다” 이야기와 어느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일어나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다가가니 그 장애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혼자 일어날 수 있다며 끔끔대고 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혼자 힘으로 일어나 활짝 웃더라는 것이었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살아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 마음먹자라는 다짐을 나의 여행(勵行)의 모토로 삼자는 생각이었다. ○○가 그 계이름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해낸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할 수 있게 하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와 같이 연습을 하게 된 나는 먼저 천천히 계이름을 말하면서 멜로디언을 불었다. 나는 ○○에게 그 모습을 따라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했다. 연습을 할 때 마다 ○○는 “선생님 나 이거 안 해. xx” 나를 향한 욕설과 함께 보인 눈물은 내가 ○○에게 연습을 하자고 할 때마다의 반복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한 달 간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남을 위해 조금만 피곤하면 내가 가진 생각인 ‘할 수 있다’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날 나는 지원을 위해 빠르게 점심을 먹고 반에 지원을 갔다. 그 때 나는 놀람을 금치 못했다. ○○가 멜로디언 계이름을 다 외우고 그 계이름을 정확히 연주를 하고 또 합주부에서 연습하는 곡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는 계이름도 잘 몰랐는데. “할 수 있다”의 마법이 통하는 그 순간이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본 나는 눈물이 났다. ○○도 정말로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릴 뿐이었다. 자발적으로 ○○를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 결실을 맺었을 때, 생각난 것은 “할 수 있다”의 힘이었다. 내가 만약 ○○가 포기를 했다면 나는 이와 비슷한 문제 상황

에서 포기를 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의 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OO는 합주부에서 멜로디언을 가장 잘 연주하는 친구가 되었고, 천광학교 합주부는 그 해 10월 경남 특수교육원에서 열린 장애학생문화예술제에 참가해서 학기 초부터 연습한 악기를 가지고 합주를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은 문화예술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남기게 했던 나의 여행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지는 차이는 그저 정도의 차이, 속도의 차이. 같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임은 분명하다. 구성원끼리 서로 보듬고 서로 일으켜 받쳐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복무를 하는 동안 그리고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부턴가 정상인은 우월감으로, 장애인은 비참함과 실망으로 서로 골을 깊이 파고는 등을 돌리고 있는 듯하다. 이젠 서로가 하나를 이룬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었지만, 장애학생지원을 통해 내가 느낀 장애 학생들의 모습은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들에게 목발을 짚는 방법을 알려주듯, 그들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기에 노력의 과정을 인내의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와 똑같은 것을 도출 할 것이라는 것을 남기면서 나의 첫 번째 여행은 끝이 났다.

## 두 번째 여행지 : “남을 위해 조금만 피곤하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복무기본교육은 나의 500일간의 여행 중 남을 위해 앞장 선 여행이었다. 작년 6월 19일을 시작으로 한 나의 사회복무연수센터 여행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작은 교육운영관님이 각자 맡으신 반에서 교육생을 대표하는 학생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교육운영관님은 학생장은 진정으로

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하셨다. 문득 나의 뇌리에 스쳤던 것은 “남을 위해 조금만 피곤하자”라는 생각이었고, 그에 지원을 해서 나는 학생장을 맡았다. 교육생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반에서 교육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입실하여 에어컨을 켜고,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마지막에 나가서 강의실의 불과 에어컨을 껐다. 아주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같은 반의 사회복지무원들을 챙기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나의 이러한 가벼운 행동은, 실제로 교육운영관님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것 같다. 그 덕이었을까? 모든 교육이 끝나고 수료식을 앞두고 교육운영관님은 나를 학생장대표로 선정해 주셔서, 학생장 대표로 모범 교육 표창을 받게 되었다. 앞장서서 기본적인 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회복지무원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힘썼던, “남을 위해 조금만 피곤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여행(勵行)은 끝이 났다.

## 500일간의 여행을 돌아보며

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여행은 “할 수 있다”, “남을 위해 조금만 피곤하자”라는 것을 남겨줬다. 500일간의 복무라는 여행(旅行)속에서 여행(勵行)을 통해 여행(餘行)을 하게 해줬다. 괴테의 말처럼 여행 하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이므로 500일은 나에게 있어서 힘껏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나는 두 가지의 것들을 여행을 통해 남겼다. 여행에서의 도착, 복무에서의 소집해제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무원들이 복무 그 자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 힘쓴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사회복지무원이 될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지무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선의 의미

이 성 수 | 서광학교

특수학교인 서광 학교는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기능적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자립과 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線:줄) - 학생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 경계하다.**

“이제부터 우리 반을 도와주실 이성수 선생님이예요.” 주로 지원을 들어갈 반의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선생이라는 단어에 머쓱한 기분이 들기도 전, ○○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물었다. “□□ 형은 어디 있어요? 그 형이 더 좋은데?” 구겨지는 인상을 숨기려 더 활짝 웃어야 했다.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보자는 나의 말에 ○○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나 또한 질 수 없단 듯이 다른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반년 동안 쉬지 않고 부딪혔던 ○○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실 외의 공간으로 이동 시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원활한 수업을 위해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수업을 듣기 싫어했던 ○○이는 온갖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시며 ○○이를 막고는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이는 내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 말고도 4명의 아이가 교실에 있기에 따라나설 수 없었다. 막무가내로 나가려는 ○○이를 말릴 수 없어 일단 교실 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버티던 와중, 사물함 위에 있던 휴지 꺾이 내 얼굴 쪽으로 날아왔다. ○○이는 여러 물건, 심지어 의자까지도 던지기를 서슴지 않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교실로 뛰어 들어오셨다.

“형이 절 때렸어요.” ○○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한 첫마디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실 밖으로 나를 불러내 자초지종을 물었다.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지만 격앙된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일단 사회복무요원실에 돌아가 있으라 하셨다. CCTV도 없고, 지나다니던 사람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없는 호소뿐이었다. 일이 더 커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일과 내내 업무지원에 집중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형.”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이의 마음이 추슬러질 때 즈음, 조심스럽게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셨다.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별일 없이 상황이 정리되어 기뻐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개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어 선을 긋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다.

다음 날, 수업에서는 아무 일 없던 듯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인사를 등지고, 곧바로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용변 지원을 갈 때면 항상 따라오던 ○○이를 떼어냈고, 그가 질문하면 말투에 시큰둥함이 묻어나게 답했다. ○○이와의 사건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무리하게 ○○이를 맡아 부딪히는 일이 없게 주로 ◇◇라는 여학생의 이동지원을 부탁하셨다.

## 선(善:착할) - 아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

말로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장애인의 욕구는 참을 수 없이 커져 남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 ◇◇는 자신의 손을 물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손등은 물지 않아도 부어있었고, 침이 묻어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의 이동지원을 하면서 복무하고 있는 나의 태도에 큰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특수학교에 배정받으며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은 침 냄새였다. 침 냄새는 양치나 청결에 신경 쓴다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학생들의 손보다 손목이나 팔을 잡고 이동지원을 인솔했다. 손에 있는 물기가 침인지 땀인지 냄새를 맡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침 냄새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었다. 손보다는 손목이 힘을 주기에 편해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 대다수가 손목을 잡는 것을 답답해했다. ◇◇는 손목을 잡고 있는 내 손을 떼어내려고 힘을 쓰다 안 되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을 물어버렸다. ◇◇가 제 손을 답답하게 여긴 것 같다고,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신에게 미안해할 게 아니라고 하셨다. “특수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남는 건 부모님뿐이에요. 당장 밖에 나가더라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타인이 무조건 차갑지는 않다는 것을 학교 안에서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성수씨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조차도 불편한 시선을 받으면 만나는 내내 신경 쓰이는데, 온종일

그러한 시선을 받았던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알고 있었지만 부정해왔던 것 같다. 냄새로 인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취했던 실용적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스크림을 사두고 쉬는 시간에 교실로 올라왔다. ○○이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슬쩍 옆자리에 앉았다. ○○이는 형이 너무 바쁜 바람에 심심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동안 ○○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내가 널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날 대하는 모습에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이지만 어리게 행동했고 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손을 잡는 것으로 교감을 시작해 지금은 ◇◇가 내게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 ◇◇의 기호가 무엇인지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긴 요령은 교과 지원이나 인솔을 더 능률적이게 만들어 주었다.

학생과 인솔자란 관계를 벗어나 얻은 교감은 직무로 매어있던 따분한 시간 대신에 친구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동정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선(先:먼저) - 교육에 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다.

깨달음과 반성을 거쳐 나를 스스로 아이들을 잘 보고 있다 여기고 있었다. 우유팩이나 간식을 대신 열어준다거나, 흘린 것을 대신 주워주는 등 적극적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이 학생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도움이 학생들의 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일이 있었다.

일반학교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성취를 가늠할 수 있듯이,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능력을 가늠하는 기능 시험이 있다. 기능 시험의 과목에는 스스로 손톱을 깎을 수 있는지, 양말을 껌 수 있는지 머리를 감을 수 있는지 등이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겐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길만한 것들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은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것이 능률적인 시간 사용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소한 기능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하교할 시간이 되어 △△이라는 학생의 인솔을 맡았다. △△은 당연하다는 듯이 매고 있던 가방을 내게 들어달라며 건넸다. 셔틀버스에 타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스스로 가방을 가져가게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 내가 가방을 받아 주지 않자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렸다. 버스 앞에 도착하기까지 한참이나 가방을 주워야 했다. 한동안 △△의 하교에 걸리는 시간은 평소 시간의 두 배가 걸렸다.

기능 시험이 학생의 잠재 능력까지 표현해주지는 못한다. 분명 노력하면 발전할 아이들이 많지만 선생님의 수는 적고, 시간은 한정적이다. 내가 비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자립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도 학생이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싫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는 학생도 있었지만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아이들과 서광학교 뒷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었다.(등산은 남의 손을 잡고 가더라도 주체적으로 힘을 주어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는 내리막길을 무서워했는데, 공포를 참고 내려가 보지만 이내 멈춰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엔 누구보다 밝고 장난기가 많은 ▽▽라 두려워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가 용기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양손을 꼭 잡았다. 좋아하는 동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갔다. “▽▽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내려가니 하나도 안 무섭지?” ▽▽는 쾌활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산을 넘어 목표한 공원에 도착하고, 학교에 돌아갈 때에는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 때보다 수월하게 산을 내려갔던 것 같다.

## 선(禪:선) - 선들을 한곳에 모아 미래를 바라보다.

복무하면서 많은 심적 변화가 있었다. ○○이와 선을 긋고 지내기도 했었고, 무작정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먼저 노력하자는 취지의 먼저 선이라는 한자를 마음에 품고 복무하고 있다. 선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해서 꼭 발전이라고 하거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와중에도 내가 오만하지 않았는지,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복무 초에는 2년이 아깝다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해버렸했다. 내 힘듦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더 비관적인 태도로 대화했던 것 같다. 못 이겨 출근하는 내 모습에 보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지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들이 평소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이다. 학생들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과 희열,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며 2년을 투자해도 전혀 아까울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은 복무기간 동안 올바른 선을 바탕으로 올바른 사회복지요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지요원 선생님이란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함과 동시에, 교육을 넘어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 스승님이 되어 줄 것이다.



##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병역의 의무

박 성 민 | 원주시가톨릭노인복지센터

### 일의 시작

2017년 5월 훈련소 입구에서 명찰을 쓰면서 입소 식을 했던 기억도 1년이 지나버렸다. 처음 시설에 들어오면서 겁을 냈던 풋내기 사회복지요원은 이제 베테랑이 되어있었다. 이렇게 사회복지요원 1년 차인 나의 이야기를 써본다.

때는 2017년 초 2차로 신청한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에 선정되니 그 날로부터 놀기 시작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놀 수 있겠냐 하면서 엄마의 가게 일도, 집안일도 다 접어두고 훈련소에 들어갈 때까지 놀았다.

5월 22일 마침내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학교친구들과는 다른 비록 4주 뿐이지만 전우라는 관계, 엄마가 해준 밥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나왔다. 4주가 지난 6월 16일 퇴소 식을 하고 다음 주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일과는 오전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2층에 있는 시설내로 모셔다 드리고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해드리고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식당에서 점심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내 점심시간을 가지고 한 시간 뒤 어르신들이 짐질용으로 쓰는 핫백을 다시 기계에 넣어서 데워서 내일

쓸 수 있게 준비해놓고 다시 식당에 가서 간식을 가지고 온 뒤 끝나는 시간 까지 대기 했다가 어르신들을 2층에서 1층으로 모셔 온 뒤 차에 태워드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했던 시설을 청소하면 나의 일과가 끝이 난다. 아주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이쪽일도 나름 고충이 있다면 쉬지를 못한다. 일이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라 얇고 길게 가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첫 마음가짐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평생 남을 위해 내 시간을 쓴 적이 없는 나에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즐겁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때 구석에 있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선생, 학생은 어디서 왔어? 참 힘들겠다! 젊은 나이에 이런대 오면 처음엔 ‘네 네’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다. 그때에는 훈련소에서 막 나오고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에는 예의에 어긋난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힘드냐고 하루일과가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차에 태워드릴 때마다 ‘오늘하루도 수고했다’고 ‘이제 소집해제 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말씀하실 때 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어느새 소집 1년이 되었다.

## 만남 그리고 이별

시설에 들어와서 맨 처음 만나신분은 젊으실 때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자꾸 인부들 밥 줘야 된다고 자꾸 나가시려고 하셨다.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신 분이다. 또 다른 분은 비록 혼자서 걷지는 못해서도 나한테 농담 하시고 욕도 잘 지게 하셨던 분이시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자리에 앉혀드리고 점심이후엔 쉬는 곳으로 앉혀드리고 다시 간식시간에 자리에 앉혀드리는 일과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우리시설이 주간보호센터인데 보호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에 오지 못하거나 병세가 더 심해지면

요양원이나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되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겨울이라서 오기 힘들다고 쉬셨다가 봄이 되어서 다시 오기도 하셨으며 아직까지도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시며 요양원으로 시설을 옮기신 분도 계신다.

가끔은 그분들이 그리긴 하다.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감을 가지신분이 떠나시면 시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럴 땐 한주정도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해지신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신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어르신들이 기뻐하신다. 심심하던 차에 새로운 동료가 오면 그때부터 한 1~2주정도 이야기꽃이 펼쳐진다. 옆에서 들여보면 서로의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식이야기, 병 이야기, 남편이야기(여기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할머니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다는 할머니 분들한테서 나온다), 직업이야기 등 한사람의 회고록이 써지는 느낌이다. 1년 동안 7~9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셨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의 표정을 본다. 만남의 기쁨 이별의 슬픔 두 개의 감정이 오간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새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성껏 도와드리는 것과 기존에 계신 분이 떠나실 때 어르신들이 슬픔을 덜 느끼게 도와드리는 것뿐이라는 게 정말 아쉽다. 그리고 나도 기존에 떠난 분들이 아직도 그리운다. 한분은 자꾸 시설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도 내가 점심이랑 간식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내생각해서인지 그때만 조용히 계셨다. 이런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더 그리워진다.

## 달라진 나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난 그동안 치매라는 병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치매는 사람이 단순히 기억을 잃고 퇴화된다는 병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본

치매의 모습은 좀 다른 거 같았다. 비록 집 주소를 잘못 알고 계시지 못해도 보호자분들의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하고 싶지만 전화를 못하시더라도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가끔은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어서 실수를 하더라도 매번 미안하다고 하신다. 치매라는 병이 비록 자신의 기억을 잃는다곤 해도 자신의 모습을 잃지는 않는다. 착하신분들은 오히려 더 착해지신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희귀하다. 치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면이 벗어지는 것 같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가면이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이후로 어르신들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이 드신 분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또 이일을 하고나서부터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내려와서 돕곤 했지만 요즘은 매일 내려가서 마감직전까지 돕는다. 이런 글을 쓸 때 내 자신에게 되물어본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아마도 힘들게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매일 8시에 집에서 나오고 6시쯤에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매일 9~10시 사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3~4시간 더 일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아서일까. 매일 아픈 몸이지만 늘 자식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셨다. 아침에 오실 때, 점심식사하실 때, 간식 드실 때, 집에 가실 때마다 자식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어머니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요즘 어머니랑 마감을 같이 할 때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하다. 1년이 지난 나를 돌아보며 쓴 글인데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

## 수기를 마치며 사회복지무원 일에 대해

이 글을 마치며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도 나 말고도 수많은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무원들이 있다. 대부분 힘든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복지기관이나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사회복지무원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일하면서 느끼는 건 이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선 현역보다 너희 쉽게 일하면서 왜 힘드냐는 소리를 듣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엔 내가 없으면 어르신들 점심 이랑 간식이 못 온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사회복지무원으로 대체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누군가는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는 한 끼를 먹으며 누군가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힘들겠지만 남은 기간 이왕이면 보람차게 다들 일했으면 한다.

그럼 다들 남은 복무기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 지하철 안내원이 되고 싶습니다!

✿ 안전 불감증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신을 찾은 이야기 ✿

조 원 익 | 대구도시철도공사

### 너만 안전 불감증?

저는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뉴스에 보도되는 사고나 재해를 보고 ‘적어도 나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제 자신도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을 2년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보낼 뻔 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얻은 깨달음으로 저의 2년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 나는 지하철 안내원

힘들었던 4주간의 훈련을 끝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첫 출근을 앞둔 지하철 사회복무요원과 교육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서 해야 할 일들과 오전반·오후반의 스케줄, 휴가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승강장에서 일어난 사고영상들을 보여주며 대처방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사고영상들은 대부분이 스크린 도어가 없을 때 철로에 빠진 승객을 구출하는 영상이었기에 내심 안도하며 편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들을 마치고 배치 받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으면 어떡하나 하던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승강장 근무를 서며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도 아니라 근무시간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요원으로 복무한지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배치 받기전의 설렘은 사라지고 점점 지루하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있기 때문에 철로 추락 사고는 안심이 되었고 다른 사고 또한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 업무라고하면 승객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것과 이곳에 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타시면 ○○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보고 ‘지하철 안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원들도 역무실에서 CCTV로 감시하는데다가 기관사가 스크린 도어에 주의하여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저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렇듯 근무를 설 때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복학했을 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을 동안 목표가 뭐니?”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격증 몇 개 따거나 토익 공부하는 겁니다.”

이 후 저는 쉬는 시간에는 책을 보고 근무 중에는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제 목표를 위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사회복지무원으로 살아갈 2년을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생활보다 복학 예정자로서의 생활에 더 치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 너도 안전 불감증

지하철역에서 복무한지 4개월째가 되는 어느 날 저는 변함없이 안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1시경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고, 그곳에는 할아버지께서 넘어져 계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더 넘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아버지를 일으켜 역무실로 모셔갔습니다.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어서 연고와 밴드로 치료를 해드렸지만, 원래 몸이 약한 분이셨는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대로 혼자 돌려보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지하철역의 휠체어로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드렸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모두 오르막길에 햇빛까지 쨍쨍해 다시 돌아올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까지 돌아오는 길, 저는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준 것에 대한 보람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불감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런 제가,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며 승강장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이 아닌 타는 중에 넘어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좀 더 주의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에도 몸을 가누기 힘든 노약자가 대부분인 지하철역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저는 안일한 생각만을 했던 것입니다. 몸이 약한 노약자는 초기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두었으면 에스컬레이터에 끌려올라 가거나 다른 승객에게 치이는 등 충분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날 수고했다는 직원의 말이 들리는 듯 마는 듯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 깨달음은 그것을 실천 할 때 완성된다.

모든 것이 안전할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는 증상, 안전 불감증. 더욱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안전 불감증이 아닐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고는 항상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 `설마 내 주변에서 사고가 나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매 순간 안전에 유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조차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철로는 스크린 도어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핑계 거리를 만들어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곧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하고 근무를 설 때의 마음 가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승강장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려 했다면 지금은 승강장 승객의 안전을 ‘책임’ 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CCTV가 닿지 않는 장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스크린 도어가 닫힐 때 급하게 승차하려는 승객이 없는지 주시하며 근무를 능동적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은 엘리베이터로 안내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부축해 드리는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껏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서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저는 다시 한 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를 필요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서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항상 길게만 느껴졌던 근무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 즐기면서 하라!

지금의 저는 막 지하철역에 배치 받았을 때의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무감각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항상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들이 즐겁습니다. 제가 안전을 위해 근무를 서는 것이긴 하지만 안내원의 역할도 있거든요. 제가 웃으며 먼저 다가가고 도움을 주려 하면 승객들도 마음을 열고 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보다 먼저 다가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해주시는 승객도 종종 계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는 할머니 한 분은 꼭 사탕을 쥐어주시고 간담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주시는 홍삼사탕이 너무 썼는데 계속 먹다보니 맛있더라고요! 또 지나가면서 저에게 더운데 고생한다는 승객들의 한 마디가 저를 힘나게 해줍니다.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과 승객들의 일상이 저에게는 저의 일상이 되고 즐거움과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가는 이곳이 이제는 저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는 2년을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군대 안 간 것을 부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하철 요원으로 있으면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제 의미를 찾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아무런 의지도 의욕도 없던 지하철 안내원은 승객들의 길안내만 해야 한다는 것에 권태를 느끼고 ‘지하철 안내원’이란 별명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며 승객과 소통하는 자랑스러운 지하철 안전요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하철 안전요원은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 사고 없는 승강장을 만들어 ‘안내원’의 역할만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 번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을 동안 목표가 뭐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지하철 안내원이 되고 싶습니다!”



## 나는 오늘도 소확행을 찾는다.

✿ 공직을 꿈꾸는 사회복지무요원의 현장 이야기 ✿

한 준 영 | 수원시청

작년 겨울부터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와 인연을 맺은지 7개월,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지루하고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행정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업무, 주민참여예산,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따뜻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공직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직을 꿈꾸는 사회복지무요원!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핸드폰 알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부모님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기 때문에 동생을 챙기는 일은 내 몫이다. 씻고 동생을 깨운 다음, 아침밥을 준비하고 나면 금세 출근시간이 다가와 동생에게 “형 간다! 또 자면 안돼!”라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선다. 그리고 7시 40분 정도 시청에 도착해 자리를 정돈하고 출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맞이하면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책임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기준사용량 이상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사용량을 지자체에서 수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월 상·하반기에 수원시 소재 탄소포인트제 참여 아파트 중 사용량이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곳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사용량을 수집, 입력한다. 숫자 하나라도 잘못 기입하면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언젠가 타시 탄소포인트 담당 주무관님께 관련된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지자체가 사용량 관리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공감해주시며 “힘내자!”고 서로 응원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다른 시·군에서 이 문제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받기 힘든 전화도 걸려오곤 한다. 한 어르신께서 뉴스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7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봤다.”며 가입하겠다고 전화를 주셨다. 그러나 인센티브 받으시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아끼셔야 하고, 1인 가구이시기 때문에 힘드실 것이라고 답해드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시며 “왜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 7만원은 왜 안주냐.”는 억지를 30분 내내 부리시다가 전화를 끊으셨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영혼까지 털리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고객번호를 잘못 적어주셔서 가입신청이 안될 때, 끝까지 전화드려서 가입완료 처리를 해드리고 “전화를 안받아서 미안하다. 챙겨줘서 고맙다.”라는 말씀 덕분에 이제는 비방전화가 와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는 내성이 생겼다.

오늘도 전화벨이 울리면 “감사합니다.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입니다!”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생각과 열정의 교류에서 이루어진다.

수원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 올해 5월 31일까지 제안하는 내용은 타당성을 검토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에 건의할 것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통체증 문제로, 망포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이 옆 건물 주차장 입구와 맞닿아 있어 주차하려는 차들과 버스가 뒤엉켜 교통체증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한 상황이라 보여졌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을 찾아 현장사진을 확보하고, 버스정류장 길이를 좀 더 늘려야한다고 보고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막상 작성하려니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복무 담당 주무관님께 조언을 구했다. 처음에는 “글이 너무 길다.”부터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인고의 노력 끝에 “저번보다 훨씬 보기 좋다. 제출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제안서를 막힘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센터와 주민참여예산에 제출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주민센터에 보내준 제안은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현장실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매우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찾아가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어 본 결과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했다고 하니 기다려보자고 말씀해주셔서 불안감은 이내 사라졌다. 이 일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는 반쪽만 보이는 전광판이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류장과 노후된 버스정류장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래서 전광판 교체와 정류장 리모델링을 건의하는 제안을 올렸다. 며칠 뒤, 시청에서 “제안 올려주신 것을 보고 직접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알아보니 양면 전광판이 재고가 있어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노후 정류장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빨리 답변을 받아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뻐다.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는 무척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긴급 민원 처리의 경우 인터넷 민원으로 건의하면 빠르면 3~4일 내,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 내로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와 주택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골목 차량 이동량이 매우 높아 도로 개집현상과 지반침하가 자주 일어난다. 올해 3월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지반침하가 일어났는데도 일주일일이 넘도록 보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찍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긴급보수를 해주셨고 3일 뒤에 완전보수를 해주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장님께서도 보수할 곳이 생기면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근래에는 통장님께서 교회 앞 빗물받이 주변이 심하게 침하되어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현장을 본 후 제안서를 올렸다. 며칠 뒤 답변이 왔는데 아쉽게도 사유지라서 구청에서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다시 현장을 찾아보니 이상하게도 보수가 되어있었고, 시에 재문의했더니 누가 보수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아직까지도 누가 보수했는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안, 불필요한 버스정류장 이전, 반사경 설치, 지하차도 환경개선안, 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 역출구 계단 정비안 등의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다. 많이 올렸는지 주민참여예산이 마감될 무렵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사람이 사회복지무원이 맞는지 확인전화를 주셔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우리 사회복지무원이 행정학을 전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헤프닝도 생겼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면서 나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답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보고서 작성법도 배울 수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동네 민원해결사는 현장을 찾는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수원천은 화성을 가로질러 황구지천에 흘러가는 2급 하천으로 길이가

2.72km에 달한다. 우리시에서는 1996년부터 하천 생태계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시켰고, 방문객들도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쓰레기도 증가해서 지역 봉사단체에서는 수원천 정화에 힘쓰고 있다. 부서 팀장님께서 이 단체를 소개시켜주신 덕분에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며 문제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다.

봄이 오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천 바닥을 뒤집어주는 준설작업을 하는 것처럼 잡초제거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구청 관계자분도 잡초제거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셔서 ‘수원천 잡초제거 정례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는데, 타당성 검토가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에는 매향교 앞 자전거 도로에 균열이 가 있어 보수조치를 한 곳이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굳지 않은데다 균열이 남아있었다. 자칫하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재보수 및 보수 시 안전펜스 설치 내용을 담은 제안을 인터넷 민원에 올렸고, 구청 건설과로부터 안전에 유의해서 재보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일요일에는 복무 전부터 꾸준히 봉사해온 거리정화 봉사에 참여한다. 봉사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거리 정화를 해도 쓰레기는 늘어날 뿐,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음식물 수거함을 상인회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민센터에 건의했다. 팀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검토해보자고 하셨다. 그러나 긴 시간 논의 끝에 예산문제와 상인회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지만, 중심상가 주변 보도블럭이 모두 새것으로 교체되었고 도로로 넘쳐흐르던 쓰레기들도 많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민센터 근처 공원에는 담배꽂초 및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담배꽂초가 너무 많아서 공원을 청소하고 나면 50L

봉투의 절반은 담배꽁초로 차있을 정도로 심각해, 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올렸다. 팀장님께서서는 공원이 다른 동에 소속되어 있어 담당 부서에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씀해주셨다. 3주 뒤, 담당 주무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무관께서는 해당 구역은 산림녹지 규정 상 금연구역 설정이 불가하고, 일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하셨다. 또한, CCTV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대만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가 힘들 것 같아 현수막을 다는 것을 권유해주셨다. 주무관님 말씀을 들은 뒤,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수막을 다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다. 하루빨리 현수막이 달려서 흡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근래에는 버스정류장 의자 뒤쪽에 쌓이는 쓰레기를 방지하고자 마감재 설치를 건의했는데 팀장님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며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에 직접 건의해볼 것을 권유하셔서 해당 건은 주민참여예산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감재 설치로 버스정류장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을 마치며

퇴근 후에는 민원현장을 찾아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하루는 금세 지나가 버린다. 어떤 주무관님은 “나중에 공무원 되면 참 공무원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몸살에 걸려 링거를 맞는 날도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나에게 “돈도 안주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말하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행복함으로 바뀌고, 내 자신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가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96번 할머니 78번 할아버지

✿ 나를 변하게 한 두 어르신 ✿

서 병 수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오만과 편견

농담처럼 말한 적은 몇 번 있지만 2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체복무를 시작하기까지 사회복지무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경우에는 삼수를 하는 동안 엄청나게 불어난 몸무게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지 못한 것인데, 나도 내가 똥똥한 것은 알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기 무리일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내 생각이야 어쨌든 나는 이러한 이유로 작년 3월부터 창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가 사회복지무원으로 바뀐 것을 알았다. 그리고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곤 했기에, 현역 군인들이 고생하는 동안 사회복지무원들은 편하게 근무한다고 여기는 부정적 편견까지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복지를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니 도화지는 도화지인데 좀 오래되어 약간 때가 탄 도화지 같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백지와 같은 내가 근무지에 처음 도착하고 나서 받은 가장 첫 질문은 이것이었다. “사회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실에서 과장님이 던진 이 질문은 내겐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처럼 거창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잡일이나 하다가 소집해제 할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라고 내심 생각했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무원, 그리고 요원이 하는 일 자체를 깔보는 시선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터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나는 다소 도발적인, 그러나 어디까지나 속으로만 건방진,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상태로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 문제는 항상 엄한 데서 터진다.

속으로 건방지든 겉으로 건방지든 그런 불손한 자세로 근무를 시작했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주방인 경로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 몇 번이 내가 해본 일의 전부였기에 처음해본 주방일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다. 처음엔 먼저 근무하던 요원에게 일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간단한 재료 준비와 손질, 종종 조리장 선생님이 지시하는 일,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가 오전 업무였고, 오후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몸이 힘든 것이야 적응하면 되는 거지만 내게 문제가 되는 건 복지관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이었다. 아주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산 것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던 터라 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말하자면 나는 노인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오래되어 업데이트가 시급한 구닥다리 기계 같은 상태였던 것이다. 어르신께서 그냥 옆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웬지 모르는 불편함이 생겨났고, 뭐라고 내게 말을 건네셔도 흐흐흐 하고 웃으면서 잼싸게 그 자리를 벗어나곤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의 어르신들을 무서워하는 수준으로 피해 다녔다. 사실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어르신을 직접 마주칠 일이 별로 없으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요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바로 명단체크였다. 복지관의 경로식당이 회원제로 운영되기도 하고 자주 결석하시는 분이 있나 확인도 할 겸, 배식 직전에 식당 옆 의자에 줄지어 앉아계신 어르신들께 번호를 여쭙보는 일이다. 내겐 번호를 여쭙보는 것부터 쉽지 않게 여겨졌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편인데,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둘이 만나 최악의 조합이 된 것이다. 정말 총체적난국이었다. 같은 분께 번호를 여러 번 여쭙보게 되니 몇몇 어르신은 역정을 내셨다.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해도 그런 일에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었다. 결국 처음에 몇 번 명단체크를 나갔을 때에는 그냥 몇 분이 오셨는지 숫자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아무 번호나 체크했었다. 완전히 제멋대로 체크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명단을 둘러보고 이전부터 자주 오셔서 체크가 빠곡하게 되어있는 분들을 위주로 숫자를 채워나갔다.

## 숫아날 구멍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꼼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범이기에 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어르신들의 얼굴과 번호를 함께 외워버리는 것이었다. ‘항상 맨 앞에 앉아계신 할아버지, 화장하고 오시는 할아버지, 코 옆에 작은 혹이 난 할머니.’ 두 달 쯤 지났을 때 나는 명단에 있는 110분 남짓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을 외울 수 있었다. 아직 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어렵고 또 기계적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얼굴과 번호를 외우는 일로 인해 예전보다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의미에서 나는 진정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하는 일을 가볍고 쉬운 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적지만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렇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일도 해롭직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 명단체크를 하러 나가서 어르신께 번호를 여쭙보는 게 형식에 불과한 경지까지 이르렀다. 예컨대 어르신께 번호를 여쭙보며 이미 볼펜은 그 분의 번호를 체크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내 방식으로 어려웠던 문제를 이런 정도까지 해결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고 있었다.

## 오만과 편견이 겸손과 이해로

그쯤에 그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배식 준비를 마치고, 내가 명단체크를 하러 나갔던 날이었다. 평범한 날이었다. 항상 맨 앞에 앉아계신 43번 할아버지는 오늘도 맨 앞에 앉아계시고, 2번 할머니의 코에는 여전히 작은 혹이 나있었다. 한 분 한 분 번호를 체크 해나가며 명단을 거의 다 채우다 보니 어느새 배식시간이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배식이 끝나기 직전에 78번 할아버지가 복지관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오시는 게 보였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좀 좋았던가, 나는 78번 할아버지께 번호를 여쭙보는 대신에

“어르신 78번이시죠?” 라고 말했다. 평소처럼 인상을 구기고 다가오던 78번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허허 웃으시면서 “이제 아네.”라고 짧게 말하시고는 식당으로 들어가셨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저 내 변덕이 만들어 낸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항상 무표정한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무표정하게 번호를 체크하는 과정은 너무 기계적이어서 나에게 대견함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보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항상 인상을 쓰고 웃음과는 너무 멀어보이던 78번 할아버지가 내가 먼저 번호를 알은 채 했다고 내게 웃어 보인 것은 충격이었고, 생각지 못한 보람을 주었던 것이다. 내게 별로 수고롭지 않은 행동 하나가 그 분을 기쁘게 하고 또 내게 이런 보람을 안겨줄 줄 몰랐다.

아마 78번 할아버지에게 번호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또 알아본 것 자체로 기뻐하신 것일 게다. 보람은 마약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 기분 좋은 보람의 감각을 알게 되자 내 처음의 건방진 속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내가 얻어 가는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고, 또 그런 보람을 계속해서 찾게 되었다.

또 이전까지 어르신들은 항상 근엄하고, 웃을 줄 모른다고 생각해 노인을 항상 어려운 존재로 여기던 내 태도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96번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드린 일도 내게 작은 보람을 안겨주었다. 96번 할머니는 78번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배식이 끝날 무렵에 늦게 오시는 분들 중 한 분이었는데, 사실 사시가 심하신 탓에 시선이 많이 비틀어진 탓에 평소엔 조금 무섭게 느끼던 분이였다. 보통 식사를 하러 오시는 할머니들은 보행을 돕고 물건보관도 겸하는 실버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96번 할머니는 실버카를 끌고 오시면서도 항상 작은

가방이나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다녔다. 그러나 허리가 많이 굽으신 탓에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식당으로 올라오는 네 칸 남짓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에 부쳐하셨다. 이전에는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선뜻 도와드리지 못했다.

바보처럼 내 선의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며 애써 못 본 체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78번 할아버지가 내게 웃어 주신 후로 나는 어쩌면 이런 내 태도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어르신,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았다. 명단을 체크하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96번 할머니께 다가가 가방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하며 두 손을 내밀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선뜻 가방을 내주시며 학생 고마워요, 라고 말하셨고 나는 아녜요 별거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뿌듯함을 느꼈겠지만 더한 일이 그 뒤에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길에 96번 할머니께서 가방을 뒤적거리려 찾아낸 사탕 몇 알을 내 손에 쥐어주시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해 하신 것이다. 그 사랑은 옛날 사탕이었지만 아주 달콤하게 먹은 기억이 난다.

두 사건이 있는 후로 나는 어르신을 대하는 데 성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 의지가 그런 태도의 근원이었다. 어쩌면 이제는 근무를 처음 시작하며 과장님이 내게 물었던 질문에 진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무로서가 아닌 자의로서, 그리고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봉사이고, 또 그것의 국가적 확장으로서 가능한 게 사회복지가 아니겠느냐고 감히 생각한다. 보람은 참 무서운 것이다. 참 건방진 속마음을 가졌던 내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주었으니 말이다.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8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 복무관리담당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ww.mma.go.kr](http://www.mma.go.kr)



## 복무지도관이라서 행복합니다

최 병 필 | 부산지방병무청

한껏 부푼 마음으로 처음으로 접해 보는 복무지도관,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스스로에게 물음도 던져 보며 잘 할 수 있을 거야, 잘해 왔잖아, 잘 될 거야를 속으로 무수히 외치며 나 자신을 다잡아 본다.

96년생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나 역시 그 시절을 겪어 왔기에 아들 또래의 사회복지요원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대하고자 노력을 해보지만 가끔씩 사회복지요원 또는 복무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 행복하다면 공무원으로 더 없이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어느덧 복무지도관으로 보람을 느끼며 생활한지 2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 복무지도관으로 사회복지요원을 상담하다보면 좋은 일 보다는 복무부실 또는 갈등을 증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 자신 스스로가 힘에 부쳐 약해질 때가 종종 있다.

복무지도관 1인당 150여개의 복무기관과 약 600~1,000여명의 사회복지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약 10% 정도는 복무부실우려자로 정신과, 수행자,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원들이다.

그간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회복지요원을 상담·지도하여 무사히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하였다. 때로는 커피한잔으로 사회복지요원의 마음을 달래 줄때도 있었고, 도저히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성향을 파악하여 가족과 합동으로 무사히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U 사회복지요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16년 9월 복무지도관으로 복무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복무지도관 전화로 K구청 복무기관 담당자로부터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인연은 시작되었다. “복무지도관님! 여기 K구청인데요. 며칠 전 서울에서 전입 온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이상합니다. 오셔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전화를 끝내고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사 온 사회복지요원으로 오늘이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첫 근무하는 날이었다.

다음날 담당자의 또 한 번의 전화 성화에 K구청으로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직접 U사회복지요원을 병무청으로 데리고 왔다.

처음 본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병든 노숙자’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못 먹어서 얼굴에 볼살은 전혀 없고 누렇게 뜬 얼굴이다.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떡진 긴 머리에,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땀 냄새나는 긴 옷에 큰 가방을 1개 어깨에 메고 있었다. 한마디로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K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이 상태로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를 시킬 수가 없으며 구청 담당과장이 사회복지요원을 병무청으로 반납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복무지도관으로서 참으로 난감하였으나 일단 사회복지요원의 상황파악이 필요할 거 같아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복무지도관도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아버지 같이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고 하니 그제야 마음을 조금씩 열고 이야기를 하였다.

원래 부산인근에 살았으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의 갈등(폭행)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가출을 하여 4~5년을 전국을 노숙자로 떠돌다가 서울에서 사회복지요원 소집되어 며칠 근무하였으나 겨울철 조금 덜 추운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잠자리는 고시원에서 며칠 지냈으나 그나마도 어려워 구청 인근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식사는 컵라면으로 해결을 한다. 가재도구도 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게 전부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옷 몇 벌, 숟가락, 밥그릇, 과도 정도가 들어 있었다. 상담 중에 느낀 것이지만 정신적인 연령이 조금 떨어지며 자존심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빨래는 고사하고 세면을 안 한지도 며칠 되었다고 하여, 사무실내 샤워장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샤워를 시킨 후, 인근 미장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여 자신이 직접 가위로 머리를 잘라 나름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옷은 사무실내 사회복지요원 여벌의 옷이 있어 착용하게 하였으며 점심 식사는 일단 병무청 구내 식당에서 해결을 하였다.

U사회복지요원과 K복무기관 담당자를 데리고 K구청을 오후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요원 관리 책임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 후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지요원이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렸으나 초기에는 냉소적이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간 사회복지요원은 노숙이 아닌 고시텔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며칠 후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를 수소문하여 연락하였으나 집을 나간 자식은 필요 없다면서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본인 또한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잠자리가 가장 급선무로 해결이 되어야 할 거 같아 동료 복무지도관들과 상의하니 노숙자 쉼터가 거주하기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수소문하여 ○○희망의 집에 사회복지요원을 동행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사회복지요원이 소집해제시까지만 기거 할 수 있도록 쉼터에 협조를 부탁하였다.

그간 ○○구청에서는 담당자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주거지원비(월 30만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서 사회복지요원에게 저렴한 방을 구해 보라고 하였다. 방을 구했다는 사회복지요원의 연락을 받고 어린 나이에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 복무지도관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을 동행하여 월세계약을 진행, 집주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당부하였다.

사무실내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신발, 전기장판 등을 기부하였으나 혹시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잘 받아 주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자 검직할 곳을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그간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보조, 전단지 배부 등을 일 정도만 하다 보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사회복지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를 모아 생활을 하게 하였다.

그 친구가 이제 올해 6월 말이면 소집해제를 한다. 그간 복무기관에서는 주거생활비 지원, 점심무료 제공, 담당자는 사회복지요원을 옆자리에 배치하여 수시로 면담 및 교육을 통하여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었다.

복무지도관이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심성이 착한 U사회복지요원도 진심으로 나를 믿고 따라 주어 무사히 복무를 마치게 될 거 같다. 복무지도관으로 수차례 주거지를 방문하여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때로는 복무가 불성실할 때는 불러 호되게 꾸지람도 한 적도 있다.

며칠 전 복무기관을 방문한 김에 ○○사회복무요원을 면담하였는데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활기가 차보이고 용모 또한 깔끔하게 하고 있어 크게 격려를 해주었더니 그간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한다. 엉클어지고 냄새나는 긴 머리카락은 짧은 스포츠로, 남루하고 냄새나는 옷은 깨끗한 사회복무요원 제복으로, 파리한 얼굴은 조금 살이 오른 귀여운 얼굴로 변화하였으며 자신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다소 마음이 놓인다. 현재는 아버지와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소집해제 후에는 일본에 가서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아! 잘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복무지도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문제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그것을 알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뿐... 그래도 나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 그들과 함께

최기섭 | 강원영동병무지청

### 복무지도관이 되어

복무지도관은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지 감독 및 지도하는 것이 주임무이고,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요원에게는 복무지도관이 지정되어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는 내가 복무지도관으로 지정되어 관리 감독, 실태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처음 복무지도관이라는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는 낯설기만 한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복무지도관 생활을 한지도 어느새 1년의 시간이 더 지나,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복무지도관 최기섭입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그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복무지도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 병역이행의 어려움

사회복지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들에 비해,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편한 신체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을 볼때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내가 기억하는 한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어릴 때 아킬레스건을 수술하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발목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해당 부위의 다리에 큰 힘을 줄 수가 없는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〇〇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복무기관 배치를 받았는데, 발목 건강이 좋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시설의 노인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조하는 데 신체조건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덕 위에 위치한 시설로 출퇴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사회복지요원에게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가 곤란한 정도의 건강상태이면 복무기관을 거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해당 신체 부위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다. 그렇지만 그는 “저는 면제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싶습니다.”라고 나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그럼 면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질병 때문에 복무에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질병을 치료한 후, 정상적으로 복무가 가능할 때 다시 복무할 수 있는 분할복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소집해제가 늦어지는데 그럼 복학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도 아니고요.”라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복무는 마치고 싶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요원의 사례를 접할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회복지요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해주길 원하지만, 복무기관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고려하여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〇〇사회복지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끝까지 다 마치고 싶어했지만,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해당 신체부위에 대해 5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요원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병역을 끝까지 마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변화

병무청 및 전국의 지방병무청에서는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도 상·하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표창을 주고 싶지만 제도 운영의 여건 상 추천 받은 사람 중 일부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년의 어느 날, 복무관리 담당자에게서 하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추천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보게 되었다. 그 명단에서 낯익은 사회복무요원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내가 복무지도관으로 배치된 지 아직 채 한 달도 안 되었을 무렵, 한 복무기관담당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담당자는 최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휴대전화만 만지작 거리고,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잦은 다툼이 있어 기관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았는데 도움은 못 받고, 복무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는 다음날 해당 기관에 방문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입고 있기 불편해서요.”라는 짧은 말로 답변했다.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는지 질문하자, “민원인이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요.”라고 화가 나는 듯 얘기를 했다. 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신의 입장에서 그의 그동안의 고충을 들어주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복무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울지 등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복 미착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경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한 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고, 힘들겠지만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하고 기관을 나섰다. 그렇게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 이후, 바쁜 일상업무로 그와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그의 이름을 모범 사회복지무원 추천자 명단에서 찾게 된 것이다. 복무기관에서 복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회복지무원이 몇 개월 후 성실 복무 사회복지무원으로 추천 된 것이다. 나는 기관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회복지무원이 요즘 근무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담당자는 “복무지도관님이 오셔서 상담하신 이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복지무원이 우리 기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사회복지무원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 복무지도관으로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복지무원은 결국에는 모범 사회복지무원으로 최종선발되지는 못했지만, 나에게겐 자랑스러운 모범 사회복지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다.

## 사회복지무원 및 복무관리담당자들과 함께

그 동안 복무지도관 생활을 해오면서, 사회복지무원과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수많은 고충사례들을 접하면서 복무지도관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을 접하게 된다. 기관담당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근무하기 불편하니까 복무기관을 변경해달라는 단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사회복지무원이나, 사회복지무원이 처음 배치된 날부터 사회복지무원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관리를 못하겠다고 사회복지무원을 바꿔달라는 기관 담당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원만한 중재로 정상적으로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끝끝내 사회복지무원과 복무기관 담당자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때면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앞으로 복무지도관 생활을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사회복지무원 복무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무원들, 복무기관 담당자들이 복무 및 복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사회복지복무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업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친다.



키 작은 아줌마 복무지도관!!!  
수호천사들의 천사로 거듭나다.

최 경 자 | 강원지방병무청

### 복무지도관 4년 째 접어들면서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윽한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출장을 가고 있다. 또랑또랑하고 오차 없는 네비게이션 안내에도 불구하고 몇 바퀴를 돌고 돌아 길을 헤매다가 겨우 도착을 한다. 출장을 다닐 때마다 4계절이 뚜렷한 조국 산천의 아름다운 자연만물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다. 거기에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복무를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

병무청에서 가장 기피하고 꺼려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관으로 근무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4년 동안 만났던 사회복지요원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뿌듯해진다. 상처받고 눌러 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소망을 주고, 복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사회복지요원 복무를 잘 마치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복무지도관의 자리가 너무나 값진 자리이다.

복무지도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 4년간 만났던 사회복지무원들의 얼굴들이 탐스런 열매처럼 조롱조롱 떠오른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몇 명 사회복지무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 소외된 곳에 한 줄기 빛으로

사회복지무원 복무지도관이 되어 사회복지무원이 배치 된 여러 기관들, 사회복지시설 등에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수천 명의 사회복지무원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사회 구석구석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따뜻하게 서있는 사회복지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근화지역아동센터 이 멋진 사회복지무원

춘천에서 발전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낙후된 곳이 바로 근화동이다.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며 찾아 간 곳이 근화지역아동센터였다. 경로이탈을 몇 번하고 겨우 찾아 들어간 곳은 교회 옆에 붙어 있는 허름한 아동센터였다. 센터장과 선생님, 그리고 검정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사회복지무원 이렇게 세 분이 근화동 작은 마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이지만, 갈 곳이 없는 또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는 아이들이 이 곳 지역아동센터로 몰려온다고 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제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환한 얼굴로 말해주는 사회복지무원이 얼마나 멋지던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청년으로 보였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결근을 하거나 연가를 간 적도 없다고 칭찬하는 센터장님께서 이 멋진 사회복지무원은 센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샘물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 동원학교 등직한 사회복지무원들

정신지체아들을 돌보고 있는 동원학교 등직한 사회복지무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지체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등직한 사회복지무원들이 각 학년 학급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Care해 주면서 어찌나 밝은 모습들인지, 가끔씩은 지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갈아주었다는 사회복지무원을 꼬옥 껴안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실태조사 기관방문 출장으로 찾아갔던 동원학교는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씩씩하고 등직한 사회복지무원들의 힘찬 함성이 있는 곳 이었고, 내 동생처럼 조카처럼 아이들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사회복지무원들의 숨결이 풍겨나는 행복한 학교였다.

## 열악한 집안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사회복지무원 중에는 어릴 적부터 이혼가정이나 편모, 편부 등 결손 가정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사회복지무원도 만날 수 있었고, 혼자 자취를 하는 사회복지무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집안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성심껏 돌봐 드리고 있었다.

## 성골롬반의 집 남다른 사회복지무원

춘천에서 살면서 이런 노인요양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살았다. 이 날 시설에서 만난 4명의 사회복지무원 중에 남다른 사회복지

요원은 눈에 확 들어오기에 충분했다. 다른 사회복지무원보다 나이도 좀 들어보였고, 훈남이었다. 살짝 슬픔이 깔려 있는 듯 입가에 열은 미소가 사연이 있어보였다. 한 명씩 상담을 하다가 남다른 사회복지요원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기 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무원으로 이 노인요양원에서 복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병든 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을 마음을 다해 섬겨드리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시골 작은 마을의 이 요양원에 매 주 찾아오는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남다른 사회복지요원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를 깨달으면서 열심히 복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대를 나온 남다른 사회복지요원은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면서 우울증도 치유 받게 되었고,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천사 같은 미소를 날려드리며, 자신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돌봐드린다고 했다. 웃음도 없었고, 어둠이었던 남다른 사회복지요원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했다.

## 근로복지공단 한송이 사회복지무원

한송이 사회복지요원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어릴 적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간암말기 환자이셨던 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안타까운 청년 이었다. 간암으로 아버지를 보내고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여러 번 했던 청년 이었다.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무청에도 찾아오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친구였다. 요원의 답답한 마음들을 30분 이상 씩 거의 매일 들어준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친구가 알코올을 끊게 되었다. 자살하려는 생각이 끊어졌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다. 아버지처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어투가 참 재미있는 친구였다.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회복지무원 중 한 사람이다.

## 강원 도청 곳곳한 사회복지무원

곳곳한 사회복지무원을 만난 것은 도청 근무지 담당자가 특별 실패 조사를 요청해서였다. 자살충동이 일어난다고 호소하는 사회복지무원이었다. 곳곳한 사회복지무원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아픔과 힘겨움이 내 온 마음으로 전해져 왔다. 체중과다로 사회복지무원이 된 청년이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일시적인 자살 충동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일단은 곳곳한 사회복지무원의 고충을 다 들어 준 후에 매일 감사한 것을 한 가지씩 찾아보자고 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보자고 권면해 주었다.

거의 한 시간을 상담해 준 것 같다. 진심으로 이 사회복지무원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눈을 가리고 상담을 해 준 친구였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정기실태조사로 도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몇 주 전에 어두웠던 곳곳한 사회복지무원의 얼굴이 환해져있었다. 과체중의 자신에 대한 큰 짐이 벗어난 것 같은 모습 이었다.

너무 감사했다. 지금껏 자살충동의 문제로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

꽃꽂한 사회복지무원도 어머니와 누나 이렇게 셋이서만 살고 있다. 다시 씩씩한 모습으로 국가기관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당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이런 과제중 사회복지무원들은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중감량도 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회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 복무지도관이라는 자리에 왜 나를 있게 하시는가? 맺음말

나는 사무운영주사보 관리 운영직군이다. 몇 년 전 행정직 전환시험이 있었는데, 남들은 다 붙는 그 시험에 다섯 번 응시해서 다섯 번 모두 떨어졌다. 그 당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렸었다. 발표 날에는 눈물도 엄청 쏟았다.

그러나 난 30년 공직생활 중 지금 복무지도관이라는 나의 직책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시험에 모두 떨어졌나보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험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회복지무원들을 섬기고 싶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음을 기쁘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다. 날마다 수호천사들의 소박한 천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 작은 빛을 함께 디자인 하는 방법

이 현 진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잘못된 편견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편견"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되새기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는 익숙한 단어. 과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나는 편견이 없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복지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번 체험수기를 통해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곳곳에 생겨났으면 한다.

### 서로를 위한 작은 관심

담당자로서의 첫 포부의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처음 맡은 업무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처음인걸요.”라며 환호의 박수를 보내 주었던 그 한마디에 잠시나마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그저 몇 사람을 관리하는 일, 소집

해제 전까지 아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단순히 생각되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록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새삼 어렵게 느껴졌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면 담당자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한 개성 사이에서 합집합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요원을 나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닌 복지관 전체의 모든 직원과 참여자분이 함께 격려하고 소통하여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담당자 복무교육에 참여했을 때 의외로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다양한 갈등의 사례를 들 수 있었다. 서로가 처음 겪는 과정이다 보니 작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좋은 방향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끝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하기에 작은 칭찬과 사소한 관심을 아낌없는 내어 준다면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소집해제 된 복무요원들부터 현재 복무 생활하는 전원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진심이 더욱 전해져 밝은 복무 생활로 이어지고 소집해제 후에도 복지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받는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 너와나 그리고 우리

그때 특유의 재미있는 웃음소리로 나를 맞이해준 사회복지요원. 소집해제 되기 한 달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직원까지 있었다. 이유는 너무나 보석 같은 사회복지요원 생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처음 배정된 복무요원이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작은 일도 본인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에 모두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대부분의 보조 업무는 작은 일, 바쁜 일, 티 나지 않는 일로 생각되어 소진되기 쉽기에 작업 환경을 격려

작업을 함께 할 때의 일이다. 하기 싫지요? 라고 건넨 한마디에 “아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라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모습에 나는 순간 당황했었다. 그동안 나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아직은 철없는 어린 대학생이라 담당자인 내가 더 많은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잘못된 생각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다. 그 이후 나의 시선도 달라졌는데 한명 한명을 소중히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니 이해 못 할 일이 없었고 다양한 업무 앞에서도 각자의 개성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신청하세요

외부 행사를 마무리하던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시각장애인 안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치게 된 것이다. “으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니 왼쪽 팔을 끌어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팔꿈치를 수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내가 담당자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고 빠른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도 병행하게 되었다. 변화는 그때부터였을까? 팔 수술 이후 보호 장치와 생활하게 되면서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으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직은 여기까지만 잘 펴져요. 선생님 시각장애인분들은 정말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그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자 팔의 상태를 물으며 시작된 짧은 대화. 하루라도 빨리 복무 생활을 마치고 싶어 이곳을 복무지로 신청하게 되었고 성실하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장애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본인이 팔을 다쳐 보니 이 작은 팔의 불편도 힘들고 답답한데 시각 장애인분들은 소중한 눈이다 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재할이란 단어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얼마 후 소집해제를 앞두고 “선생님 저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활동 보조교육 신청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양성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생활 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무원에게 평소 자격증 시험을 권유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첫 번째가 활동보조인 자격이었다. 몇 차례 권유하였으나 팔을 다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만 생각했었는데 다친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결론에 소집해제 후 복지관에서 기본과정을 수료하여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눈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복무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모범적인 모습에 다른 사회복지무원들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전원 더욱 성실하게 근무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여 공부 또한 병행하고 있다. 팔 수술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한 발짝 다가선 사회복지무원을 힘차게 응원하고 싶다.

## 잘 꿰진 첫 단추

복지관 사회복지무원들은 서로를 의형제라고 부르며 소집해제 이후에도 종종 모여서 근황을 묻고 서로의 생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짧은 복무 생활의 인연을 소중히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모임 다음날 출근하면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무원 한명 한명이

그렇게 소중한 보일 수가 없다.

현재 복지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 앞으로 그렇게 될 예비 사회복지무원에게 담당자로서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소집해제를 맞이한 날 “그래 이곳에서 복무 생활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재미있었고 행복했던 것을 느끼게 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즐거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짜증 나는 일, 화나는 일만 기억될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데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첫 단추! 첫 사회복지무원의 여러 모범적인 행동으로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사회복지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무원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일을 이룰 수 있는지, 중요한 밑바탕 인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고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길 소망한다.

# 정음

## 향기로 피어나다

2018 사회복지요원 체험수기집

---

발행인 병무청장 기찬수

편집인 사회복지국장 권병태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Tel.042)481-3043 Fax.042)481-3040  
[www.mma.go.kr](http://www.mma.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문영 Tel.042)472-5081

---

발간등록번호 11-1300000-000143-10



## 향기로 피어나다

2018 사회복지무요원 체험수기집

“사랑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한 경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한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엔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험수기 중에서 -



병무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http://www.mma.go.kr)